

세미나자료 2021-13

2021. 12. 15.(수) 15:00~17: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2021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세미나자료 2021-13

2021. 12. 15.(수) 15:00~17: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2021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2021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정책토론회

- 일 시: 2021. 12. 15.(수) 15:00~17:00
- 장 소: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외부참석자 원격회의로 진행

● 일 정

■ 사회자: 구자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시 간	내 용	
15:00	개 회	
15:10~15:30	주제발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5:30~16:40	종합토론	[좌장] 박은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토론자] 이성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윤미경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신두원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송영태 (학부모) 김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정경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6:40~16:50	질의응답	
16:50~17:00	정리 및 폐회	



CONTENTS

2021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정책토론회

● 주제발표

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1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정책 방안 토론 59
이성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교사전문성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65
권혜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3.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정책세미나 토론문 71
윤미경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4.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사의 요청안 77
신두원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5.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학부모의 제안 83
송영태 (학부모)
6.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 87
김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7.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기대 93
정경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01

주제 발표

2021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

김 은 영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본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1년도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미발간 보고서의 내용에 기초하여 정리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측하지 못한 사회적 상황 하에서도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 조성이라는 유아 교육 혁신 방향에 맞추어 개정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어 유아에게 놀이권과 행복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 2020: 27). 개정 누리과정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식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교사의 자율성 신장을 통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아정책연구소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3년차로 기획하였다. 2020년에 수행된 1년차 과제가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실태와 함께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에 대한 관계자들의 인식과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 현장에 적용하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분석하여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면, 2021년에 수행하는 2년차 과제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실태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인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보고자 하였다. 2022년에 수행될 3년차 과제는 3년간의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영향력 및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개정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시사점을 기술하고, 원장, 교사, 부모의 인식에 대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며,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현장 교사의 인식과 교육과정 실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기초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2020년에 제안한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전달체계 차원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¹⁾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개정 누리과정 고시 이후에도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2020년 8종의 자료를 생산하고 2021년에도 현장지원자료 개발과 교원 연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된 자료는 누리과정포털인 i-누리에 탑재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뿐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국민까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대상으로 개발된 자료에 대한 활용 연수를 실시하여 행정 부처는 다르지만 어린이집에서도 개정 누리과정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유치원 전달체계인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나 대상의 규모 및 예산은 상당한 편차가 있었지만,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가장 많이 하는 지원사업은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이었고, 그 다음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이었다.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내용의 초점은 주로 놀이 지원, 일과운영, 상호작용, 관찰 기록 등이었으며, 관련 요구 사항은 개정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전문성 신장과 풀 운영에 관한 것과 재정적인 지원, 자발적 동기나 참여, 소통, 공유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았다. 또한 전년과 다르게 코로나19와 미래교육 대비를 위하여 유아 대상 원격교육이 새로운 주제로 추가되었고, 연수나 협의 및 사업의 공유 방식을 원격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담당공무원들은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유아 및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한 범국민 대상 홍보에 대한 의견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1)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업 중심으로, 어린이집은 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중심으로 조사하여 분석함.

셋째,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유형은 많이 다르지 않았으나, 대상의 규모와 예산은 편차가 있었다.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하여 가장 많이 진행한 사업은 연수였고, 그 다음은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이었다.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지원 사업 내용의 초점은 주로 누리과정 개정의 핵심 방향이었던 유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 운영과 상호작용, 환경 구성, 놀이 이해, 놀이 지원 등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들은 예산 지원 확대 및 전문적인 인력풀 운영, 지속적인 소통, 표준 운영 모델이나 매뉴얼 개발, 누리과정포털을 이용한 자료 공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수에 있어 원장 대상 연수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들은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 확보 노력, 어린이집 평가제의 지속적인 개정, 놀이 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자료 개발 및 보급,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적 지원 등을 제안하였다.

3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²⁾

1) 자녀와 교육과정에 대한 기대 및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어떤 점에서 뛰어나기를 바라는지 1순위 선택 결과를 살펴보면, 성격과 태도가 5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성 24.22%, 신체용모 8.9%, 학업능력 6.7%, 예체능적 자질 8.2%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유치원 이용 부모의 경우 어린이집 부모에 비해 성격 및 태도, 사회성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고, 어린이집 부모의 경우 신체용모, 학업능력, 예체능적 자질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보면, 전체적인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였으나, 650만원 이상의 소득 집단은 신체용모보다는 학업능력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 각 500명씩, 2000명, 5세 학부모 1,000명,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표 3-1〉 자녀에 대한 기대(1순위): 부모

단위: %(명)

구분	성격, 태도	사회성	신체 용모	학업 능력	예체능적 자질	계(수)
전체	56.3	24.2	8.9	6.7	3.9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58.4	25.3	6.9	6.6	2.8	100.0 (562)
어린이집	53.7	22.8	11.4	6.8	5.3	100.0 (438)
$\chi^2(df)$	10.8(4)*					
가구소득						
349만원 이하	51.9	25.2	10.7	6.1	6.1	100.0 (214)
350~499만원	53.3	30.3	8.0	6.1	2.3	100.0 (261)
500~649만원	60.4	23.2	8.2	4.3	3.9	100.0 (280)
650만원 이상	58.8	18.0	9.0	10.6	3.7	100.0 (245)
$\chi^2(df)$	24.2(12)*					

* $p < .05$

주: 2021년 조사의 새로운 문항임.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하는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40.5%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과 충분한 놀이가 24.5%와 22.8%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현장 체험과 예체능 교육은 각각 7.4%와 4.5%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다.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에 대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할 수는 없으나 수치상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대한 기대는 유치원 이용 부모가 더 높았고,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에 대한 기대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교육과정 운영에 가장 기대하는 점: 부모

단위: %(명)

구분	기본생활 습관 교육	초등준비 학습	충분한 놀이	현장 체험	예체능 교육	기타	계(수)
전체	40.5	24.5	22.8	7.4	4.5	0.3	100.0 (1,000)
유치원	43.1	22.4	23.7	5.7	4.8	0.4	100.0 (562)
어린이집	37.2	27.2	21.7	9.6	4.1	0.2	100.0 (438)
$\chi^2(df)$	N/S						

주: 1)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2) 2021년 조사의 새로운 문항임.

2019년 개정 누리과정을 인지하고 있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2.7%는 누리과정이 개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37.3%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취업여부, 최종학력, 원격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 취업 부모에 비해 미취업 부모가 더 많이 인지하였고,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부모의 인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년대졸 부모의 인지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격교육을 경험한 부모들은 경험하지 않은 부모들에 비해 누리과정 개정 여부를 인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3〉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인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2020년 조사)	62.9	37.1	100.0 (1,000)
전체	62.7	37.3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61.7	38.3	100.0 (562)
어린이집	63.9	36.1	100.0 (438)
$\chi^2(df)$	0.5(1)		
취업여부			
취업	57.9	42.1	100.0 (722)
미취업	75.2	24.8	100.0 (278)
$\chi^2(df)$	25.6(1)***		
최종학력			
고졸 이하	62.5	37.5	100.0 (104)
전문대졸	72.4	27.6	100.0 (228)
4년제대학졸	58.9	41.1	100.0 (548)
대학원졸 이상	61.7	38.3	100.0 (120)
$\chi^2(df)$	12.5(3)**		
원격교육 경험 유무			
경험 있음	69.1	30.9	100.0 (359)
경험 없음	59.1	40.9	100.0 (641)
$\chi^2(df)$	9.8(1)**		

** $p < .01$ *** $p < .001$.



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교육에서 놀이 중심 교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필요한 편이라는 응답이 57.5%,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8.3%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놀이 중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인식 정도는 4점 만점에 3.33점으로 2020년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소속 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4〉 유아교육에서의 놀이 중심 교육 필요성: 부모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음	필요하지 않은 편임	필요한 편임	매우 필요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2020년 조사)	0.1	1.5	52.9	45.5	100.0 (1,000)	3.44	0.53
전체	0.7	3.5	57.5	38.3	100.0 (1,000)	3.33	0.58
유치원	1.1	3.0	56.8	39.1	100.0 (562)	3.34	0.59
어린이집	0.2	4.1	58.4	37.2	100.0 (438)	3.33	0.56
$\chi^2(df)/t$	N/S					0.4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놀이 중심으로 개정된 누리과정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은 무엇인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가 걱정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51.7%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놀기만 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부모도 13.3%이었다. 반면, 이와 관련된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부모도 3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비해 걱정이 없다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놀기만 할까봐 걱정된다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3-5〉 놀이 중심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 부모

단위: %(명)

구분	걱정이 없음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놀기만 할까 봐 걱정됨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 걱정됨	기타	계(수)
(2020년 조사)	36.1	11.4	51.7	0.8	100.0 (1,000)
전체	34.6	13.3	51.7	0.4	100.0 (1,000)
유치원	34.5	14.1	51.2	0.2	100.0 (562)
어린이집	34.7	12.3	52.3	0.7	100.0 (438)
$\chi^2(df)$	N/S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2)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

교사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3.10~3.27점으로 전문성이 있는 편으로 평정하였으며, ‘나는 유아가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이 3.2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항목이 3.1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모든 항목의 점수는 소속기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유치원 교사의 점수가 어린이집 교사의 점수보다 모두 높았다.

〈표 3-6〉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교사

단위: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	전체	3.10	0.48	(1,000)
	유치원	3.16	0.52	(500)
	어린이집	3.04	0.44	(500)
	<i>t</i>	4.1***		
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할 수 있다	전체	3.13	0.51	(1,000)
	유치원	3.19	0.52	(500)
	어린이집	3.07	0.48	(500)
	<i>t</i>	3.8***		
나는 유아가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22	0.52	(1,000)
	유치원	3.27	0.56	(500)
	어린이집	3.17	0.47	(500)
	<i>t</i>	3.0**		
나는 실내외 환경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전체	3.26	0.50	(1,000)
	유치원	3.33	0.52	(500)
	어린이집	3.19	0.48	(500)
	<i>t</i>	4.2***		
나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일과 계획을 할 수 있다	전체	3.26	0.50	(1,000)
	유치원	3.33	0.51	(500)
	어린이집	3.20	0.48	(500)
	<i>t</i>	4.1***		
나는 유아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놀이 지원 계획을 할 수 있다	전체	3.19	0.54	(1,000)
	유치원	3.23	0.57	(500)
	어린이집	3.15	0.51	(500)
	<i>t</i>	2.5*		



주제발표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나는 유아가 놀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체	3.27	0.51	(1,000)
	유치원	3.34	0.52	(500)
	어린이집	3.21	0.49	(500)
	<i>t</i>	4.1***		
나는 유아의 놀이 경험이 교육과정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전체	3.24	0.52	(1,000)
	유치원	3.31	0.52	(500)
	어린이집	3.17	0.50	(500)
	<i>t</i>	4.5***		
나는 놀이 관찰을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전체	3.25	0.50	(1,000)
	유치원	3.32	0.51	(500)
	어린이집	3.19	0.47	(500)
	<i>t</i>	4.1***		
나는 평가결과를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전체	3.18	0.51	(1,000)
	유치원	3.24	0.52	(500)
	어린이집	3.11	0.49	(500)
	<i>t</i>	4.1***		

주: 2021년 조사의 새로운 문항임.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에 대한 이수 여부를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원장의 85.5%와 교사의 95.4%가 연수를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근소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의 이수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유치원 원장의 경우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공립단설이 98.6%로 가장 높았고, 공립병설이 79.7%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공립병설의 경우 학교장이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관규모에 따라서도 100인상 규모 기관의 원장의 이수 비율이 92.8%로 가장 높고, 50인 미만 규모 기관의 원장의 이수비율이 78.5%로 가장 낮았다. 한편, 교사의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주목할 만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7〉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이수 여부: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2020년 조사)	87.7	12.3	100.0 (1,000)	95.4	4.6	100.0 (1,000)
전체	85.5	14.5	100.0 (1,000)	91.2	8.8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87.8	12.2	100.0 (500)	93.2	6.8	100.0 (500)
어린이집	83.2	16.8	100.0 (500)	89.2	10.8	100.0 (500)
$\chi^2(df)$	4.3(1)*			5.0(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98.6	1.4	100.0 (69)	97.1	2.9	100.0 (69)
공립병설	79.7	20.3	100.0 (202)	94.6	5.4	100.0 (202)
사립법인	95.5	4.5	100.0 (67)	91.0	9.0	100.0 (67)
사립개인	90.1	9.9	100.0 (162)	90.7	9.3	100.0 (162)
$\chi^2(df)$	24.4(3)***			N/S		
기관 규모						
50인 미만	78.5		21.5	92.8	7.2	100.0 (345)
50~100인 미만	88.1		11.9	89.0	11.0	100.0 (353)
100인 이상	92.8		7.2	92.1	7.9	100.0 (302)
$\chi^2(df)$	27.9(2)***			3.5(2)		

* $p < .05$, *** $p < .001$.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개정 누리과정에 관한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로, 원장은 정보부족 28.3%, 시간부족 20.0%, 연수 신청의 어려움 13.8%, 기타 11.7%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정보부족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시간부족과 정보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유치원 원장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연수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어린이집 원장이 더 많았다. 이에 비해 교사의 경우에는 연수신청이 어렵다는 응답이 전년도에는 33.6%로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9.1%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정보부족이 28.4%, 시간부족이 21.6%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니었으나, 시간부족, 정보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은 유치원 원장에게, 연수신청의 어려움, 연수장소 접근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많이 나타났다.



〈표 3-8〉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족	정보 부족	연수 신청이 어려움	연수 장소 접근의 어려움	기타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31.4	13.9	27.6	-	27.0	100.0 (123)
전체	20.0	28.3	13.8	11.7	26.2	100.0 (145)
유치원	29.5	39.3	4.9	9.8	16.4	100.0 (61)
어린이집	13.1	20.2	20.2	13.1	33.3	100.0 (84)
$\chi^2(df)$	19.5(4)**					
교사 (2020년 조사)	18.6	23.0	33.6	-	24.9	100.0 (46)
전체	21.6	28.4	9.1	11.4	29.5	100.0 (88)
유치원	35.3	32.4	0.0	2.9	29.4	100.0 (34)
어린이집	13.0	25.9	14.8	16.7	29.6	100.0 (54)
$\chi^2(df)$	N/S					

** $p < .01$.

주: 1) 연수 장소 접근의 어려움은 2021년 조사에 추가된 항목임.

2)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집합 연수와 원격연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원장의 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집합연수 3.00점, 원격연수 3.04점으로 나타났으며, 집합연수와 원격연수 모두 기관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유치원 원장의 만족도가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더 높았다. 원장의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의 원장에 비해 10년 이상의 경력 원장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교사의 경우는 집합연수 3.04점, 원격연수 3.06점으로 나타났으며, 원격연수에서 유치원 교사의 만족도가 어린이집 교사의 만족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9〉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에 대한 만족도

구분	집합연수						원격연수					
	원장			교사			원장			교사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전체	3.00	0.54	(562)	3.04	0.49	(637)	3.04	0.50	(736)	3.06	0.48	(859)
유치원	3.06	0.55	(286)	3.08	0.50	(305)	3.11	0.51	(408)	3.10	0.52	(447)
어린이집	2.95	0.52	(276)	3.01	0.48	(332)	2.97	0.48	(328)	3.03	0.43	(412)
<i>t</i>	2.4*			1.8			3.8***			2.2*		

* $p < .05$, *** $p < .001$.

주: 2020년도에는 항목별 만족도를 조사함.

향후 희망하는 연수를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원장의 경우, 놀이지원이 41.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계획안, 관찰기록 등 문서 26.6%, 놀이공간 및 자료 지원 24.1%, 유아와의 상호작용 23.3%, 유아 및 누리과정 평가 18.0%, 부모교육이나 참여 11.7% 순이었다. 교사도 원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놀이지원이 54.5%로 가장 높았으며, 계획안, 관찰기록 등 문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놀이공간 및 자료 지원 등이 30%를 넘는 비율을 보였다.

〈표 3-10〉 개정 누리과정 관련 희망하는 연수(복수응답): 원장과 교사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수)
원장												
전체	26.6	41.7	23.3	24.1	18.0	11.7	9.1	26.6	8.3	10.4	0.2	(1,000)
유치원	27.0	39.2	12.8	28.4	20.0	14.6	10.4	24.6	9.0	14.0	0.0	(500)
어린이집	26.2	44.2	33.8	19.8	16.0	8.8	7.8	28.6	7.6	6.8	0.4	(500)
교사												
전체	32.6	54.5	30.6	30.1	14.4	5.5	6.0	14.3	3.4	8.3	0.3	(1,000)
유치원	31.2	55.8	25.6	31.6	16.8	3.8	7.0	14.6	1.8	11.8	0.0	(500)
어린이집	34.0	53.2	35.6	28.6	12.0	7.2	5.0	14.0	5.0	4.8	0.6	(500)

주: ① 계획안, 관찰 기록 등 문서 ② 놀이 지원 ③ 유아와의 상호작용 ④ 놀이 공간 및 자료 지원 ⑤ 유아 및 누리과정 평가 ⑥ 부모 교육이나 참여 ⑦ 학습공동체 구성이나 운영 ⑧ 교사전문성 신장 ⑨ 기관평가와 누리과정 ⑩ 유아 대상 원격교육 운영 ⑪ 기타



개정된 누리과정과 관련된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원장의 30.1%와 교사의 36.0%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20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어린이집 원장은 15.3%만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데 비해 유치원 원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2배인 30.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공립단설의 경우에만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비율이 받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았다. 또한 기관규모에 따라 100인 이상 기관의 경우 다른 규모에 비해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원장의 경력기간이 긴 집단일수록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도 유치원 교사 45.2%, 어린이집 교사 26.8%로 유치원 교사의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유치원의 경우, 공립단설, 공립병설, 사립개인, 사립법인 교사 순으로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집의 경우 직장,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민간 교사 순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규모에 따라서도 100인 이상 규모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11〉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2020년 조사)	23.1	76.9	100.0 (1,000)	25.7	74.3	100.0 (1,000)
전체	30.1	69.9	100.0 (1,000)	36.0	64.0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0.8	69.2	100.0 (500)	45.2	54.8	100.0 (500)
어린이집	15.3	84.7	100.0 (500)	26.8	73.2	100.0 (500)
$\chi^2(df)$	91.8(1)***			36.7(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59.4	40.6	100.0 (69)	65.2	34.8	100.0 (69)
공립병설	44.6	55.4	100.0 (202)	47.5	52.5	100.0 (202)
사립법인	35.8	64.2	100.0 (67)	34.3	65.7	100.0 (67)
사립개인	40.1	59.9	100.0 (162)	38.3	61.7	100.0 (162)
$\chi^2(df)$	9.(3)*			18.0(3)***		

구분	원장			교사		
	있음	없음	계(수)	있음	없음	계(수)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0.3	79.7	100.0 (118)	36.4	63.6	100.0 (118)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14.8	85.2	100.0 (115)	25.2	74.8	100.0 (115)
민간	15.1	84.9	100.0 (205)	16.6	83.4	100.0 (205)
직장	14.5	85.5	100.0 (62)	45.2	54.8	100.0 (62)
$\chi^2(df)$	2.0(3)			27.3(3)***		
기관 규모						
50인 미만	23.3	76.7	100.0 (391)	33.5	66.5	100.0 (391)
50~100인 미만	31.4	68.6	100.0 (360)	31.7	68.3	100.0 (360)
100인 이상	39.0	61.0	100.0 (249)	46.2	53.8	100.0 (249)
$\chi^2(df)$	18.2(2)***			15.2(2)**		
경력						
5년 미만	38.0	62.0	100.0 (292)	38.6	61.4	100.0 (127)
5~10년 미만	29.2	70.8	100.0 (260)	34.1	65.9	100.0 (375)
10년 이상	25.4	74.6	100.0 (448)	36.7	63.3	100.0 (498)
$\chi^2(df)$	13.4(2)**			1.1(2)		

*** $p < .001$.

다음은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로, 원장의 89.7%와 교사의 94.7%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의 평균으로 보면 원장의 만족도는 3.09점, 교사의 만족도는 3.13점으로 2020년 각 3.20점, 3.18점에 비해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유의미한 만족도 차이는 없었으나, 유치원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립개인 원장의 만족도가 다른 유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장의 경력에 따라서도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원장에 비해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원장의 만족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사후검증 결과 입증되었다. 소속기관에 따른 만족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 점수는 원장과 교사 모두 3.1점 내외를 기록하였다.



〈표 3-12〉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원장 (2020년 조사)	2.0	5.4	63.4	29.3	100.0 (231)	3.20	0.62
전체	1.0	9.3	69.4	20.3	100.0 (301)	3.09	0.57
유치원	0.9	8.2	69.5	21.4	100.0 (220)	3.11	0.57
어린이집	1.2	12.3	69.1	17.3	100.0 (81)	3.02	0.59
$\chi^2(df)/t$	N/S					1.2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a	0.0	9.8	58.5	31.7	100.0 (41)	3.22	0.61
공립병설 ^b	0.0	1.1	72.2	26.7	100.0 (90)	3.26	0.46
사립법인 ^c	0.0	8.3	62.5	29.2	100.0 (24)	3.21	0.59
사립개인 ^d	3.1	16.9	75.4	4.6	100.0 (65)	2.82	0.56
$\chi^2(df)/F$	N/S					9.6***, a,b,c>d	
경력							
5년 미만 ^a	0.0	9.0	71.2	19.8	100.0 (111)	3.11	0.53
5~10년 미만 ^b	0.0	6.6	64.5	28.9	100.0 (76)	3.22	0.56
10년 이상 ^c	2.6	11.4	71.1	14.9	100.0 (114)	2.98	0.61
$\chi^2(df)/F$	N/S				100.0 (81)	4.2*, b>c	
교사							
(2020년 조사)	1.3	3.3	66.7	28.7	100.0 (257)	3.18	0.55
전체	0.6	5.3	75.0	19.2	100.0 (360)	3.13	0.50
유치원	0.9	4.9	71.2	23.0	100.0 (226)	3.16	0.54
어린이집	0.0	6.0	81.3	12.7	100.0 (134)	3.07	0.43
$\chi^2(df)/t$	N/S					1.9	

주: 1)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 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2) a, b, c, d는 Sheffe의 사후 검증 결과임.

향후 희망하는 장학이나 컨설팅 내용으로 연수내용과 유사하게 원장은 놀이지원 38.1%, 계획안, 관찰기록 등 문서 30.2%, 유아와의 상호작용 24.0%, 놀이공간 및 자료 지원 22.5%, 유아 및 누리과정 평가 19.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교사의 경우에도 놀이 지원 50.8%, 계획안, 관찰기록 등 문서 31.6%, 유아와의 상호작용 29.6%, 놀이공간 및 자료지원 29.1%, 유아 및 누리과정 평가 16.5% 등으로 원장의 응답 순위와 동일하였다.

〈표 3-13〉 향후 희망하는 장학이나 컨설팅(복수응답):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
원장											
(2020년 조사)	15.0	30.5	8.5	9.1	8.6	3.1	17.9	2.2	0.3	-	(500)
전체	30.2	38.1	24.0	22.5	19.9	10.0	11.1	27.3	9.0	7.9	(500)
유치원	28.0	35.2	12.2	23.4	22.4	14.2	13.6	29.0	9.6	12.4	(500)
어린이집	32.4	41.0	35.8	21.6	17.4	5.8	8.6	25.6	8.4	3.4	(1,000)
교사											
(2020년 조사)	18.6	39.1	9.2	14.0	4.6	2.1	3.0	8.2	0.9	0.3	(500)
전체	31.6	50.8	29.6	29.1	16.5	6.6	9.4	14.3	5.1	7.0	(1,000)
유치원	28.6	53.2	23.2	29.2	17.0	7.2	11.6	15.2	3.8	11.0	(500)
어린이집	34.6	48.4	36.0	29.0	16.0	6.0	7.2	13.4	6.4	3.0	(500)

주: ① 계획안, 관찰기록 등 문서 ② 놀이 지원 ③ 유아와의 상호작용 ④ 놀이공간 및 자료지원 ⑤ 유아 및 누리과정 평가 ⑥ 학부모 교육
 혹은 참여 ⑦ 학습공동체 구성이나 운영 ⑧ 교사전문성 신장 ⑨ 기관평가와 누리과정 ⑩ 유아 대상 원격교육 운영(10번은 2020년
 보기에 새로 추가됨)

교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원내 자율장학이 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원내 멘토링 31.5%, 동아리나 소모임 29.7%, 강사 초빙 원내 연수 17.5%, 타기관 참관 9.2% 등의 순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여 기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원내 멘토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교사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의 경우 유치원 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참여하는 것 없다는 응답은 유치원 교사는 8.2%인 데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26.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표 3-14〉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동아리/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하는 것 없음	(수)
(2020년 조사)	25.2	46.8	23.1	14.8	8.1	6.2	-	(1,000)
전체	29.7	56.0	31.5	17.5	9.2	4.9	17.4	(1,000)
유치원	49.6	71.2	25.8	20.2	10.2	4.8	8.2	(500)
어린이집	9.8	40.8	37.2	14.8	8.2	5.0	26.6	(500)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을 조사하였다. 타 기관 참관이 30.8%로 전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강사초빙 원내연수 27.9%, 동아리나 소모임 21.8%, 원내 멘토링 7.3%, 원내 자율장학 6.0% 순이었으며,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5.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20년도 조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교사가 실제 참여하는 활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표 3-15〉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 교사

단위: %(명)

구분	동아리/ 소모임	원내 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타기관 참관	기타	참여 원하지 않음	계(수)
(2020년 조사)	20.0	4.8	7.2	29.6	30.7	1.0	6.7	100.0 (1,000)
전체	21.8	6.0	7.3	27.9	30.8	0.6	5.6	100.0 (1,000)
유치원	29.8	7.4	5.6	22.0	30.0	0.6	4.6	100.0 (500)
어린이집	13.8	4.6	9.0	33.8	31.6	0.6	6.6	100.0 (500)
$\chi^2(df)$	N/S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교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이 2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동아리나 소모임 등의 학습공동체 16.3%, 원격연수 15.6%, 집합연수 13.6%, 강사초빙 원내연수 10.2% 순이었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하여 집합연수, 강사초빙 원내 연수, 타 기관 참관이라는 응답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원격연수라는 응답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유치원 교사는 어린이집 교사에 비해 원내 자율장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어린이집 교사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6〉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 방법(1순위): 교사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계(수)
(2020년 조사)	15.9	11.4	2.8	22.5	16.1	5.2	4.0	12.8	9.1	0.1	100.0 (1,000)
전체	13.6	15.6	3.3	23.8	16.3	5.0	4.2	10.2	7.9	0.1	100.0 (1,000)
유치원	12.2	14.6	2.2	17.6	26.2	6.2	3.8	8.4	8.6	0.2	100.0 (500)
어린이집	15.0	16.6	4.4	30.0	6.4	3.8	4.6	12.0	7.2	0.0	100.0 (500)
$\chi^2(df)$	N/S										

주: 1) ① 집합연수 ② 원격연수 ③ 외부장학 ④ 외부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⑤ 동아리나 소모임(학습공동체) ⑥ 원내 자율장학(동료장학 등)
 ⑦ 원내 멘토링 ⑧ 강사초빙 원내 연수 ⑨ 타 기관 참관 ⑩ 기타
 2)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3) 개정 누리과정 운영 실태 및 인식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누리과정 일과 운영시간을 조사하였는데, 모든 일과 영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일과 운영시간은 평균 6시간 11분으로 2020년 조사에 비해 약 8분 감소하였으며, 유치원 4시간 51분, 어린이집 7시간 30분으로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2시간 40가량 길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3시간 48분으로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였으며, 유치원 3시간 8분(일과시간의 64.7%), 어린이집 4시간 28분(일과시간의 59.6%)이었다. 이 중 실내놀이는 유치원 1시간 28분(일과시간의 30.1%), 어린이집 2시간 44분(일과시간의 36.5%)이었고, 실외놀이는 유치원 1시간 2분(일과시간의 21.2%), 어린이집 1시간 9분(일과시간의 15.3%)으로 나타났다. 교사주도 활동의 경우 유치원 39분(일과시간의 13.4%), 어린이집 35분(일과시간의 7.7%)으로 교사주도 활동 시간만 유치원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시간은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6분 정도 감소한 1시간 59분이었으며, 유치원 1시간 26분(일과시간의 29.4%), 어린이집 2시간 33분(일과시간의 33.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점심 및 간식 시간은 유치원 55분(일과시간의 18.7%), 어린이집 74분(일과시간의 16.5%)이었고, 낮잠 및 휴식 시간은 유치원 8분(일과시간의 2.7%), 어린이집 46분(일과시간의 10.2%)으로 어린이집의 낮잠 및 휴식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생활 시간은 유치원 23분(일과시간의 8.0%), 어린이집 32분(일과시간의 7.2%)이었다.



전이 및 기타시간은 전체적으로 23분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2분 정도 감소하였다. 유치원 17분(일과시간의 6.0%), 어린이집 29분(일과시간의 6.5%)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전이 시간이 유치원 15분(일과시간의 5.1%), 어린이집 26분(일과시간의 5.8%)을 차지하였다.

〈표 3-17〉 누리과정 일과 운영 시간: 교사

단위: 분(%)

구분	전체(<i>n</i> =1,000)		유치원(<i>n</i> =500)		어린이집(<i>n</i> =500)		<i>t</i>
	평균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평균 (%)	표준편차	
일과 총 시간	370.75 (100.0)	115.20	291.18 (100.0)	70.58	450.32 (100.0)	94.33	-30.2***
(2020년 조사)	378.55	112.97	297.77	73.54	459.32	84.06	-32.3***
교육시간							
실내놀이	126.01 (34.0)	60.73	87.60 (30.1)	34.38	164.42 (36.5)	56.97	-25.8***
실외놀이	65.34 (17.6)	22.53	61.64 (21.2)	19.30	69.04 (15.3)	24.83	-5.3***
교사주도활동	36.91 (10.0)	25.50	39.04 (13.4)	24.81	34.78 (7.7)	26.02	2.6**
소계	228.26 (61.6)	73.66	188.28 (64.7)	51.21	268.24 (59.6)	70.97	-20.4***
(2020년 조사)	229.61	68.25	190.98	50.02	268.24	61.90	-21.7***
일상생활시간							
점심 및 간식	64.49 (17.4)	24.09	54.50 (18.7)	17.29	74.48 (16.5)	25.74	-14.4***
낮잠 및 휴식	26.95 (7.3)	35.15	7.84 (2.7)	14.65	46.06 (10.2)	39.09	-20.5***
기본생활	27.73 (7.5)	16.49	23.18 (8.0)	12.96	32.28 (7.2)	18.30	-9.1***
소계	119.17 (32.1)	54.76	85.52 (29.4)	29.47	152.82 (33.9)	53.53	-24.6***
(2020년 조사)	124.80	58.47	87.78	34.38	161.82	54.01	-25.9***
전이 및 기타시간							
전이시간	20.54 (5.5)	18.94	14.84 (5.1)	14.73	26.24 (5.8)	20.88	-10.0***
기타	2.78 (0.7)	12.13	2.54 (0.9)	10.60	3.02 (0.7)	13.50	-0.6
소계	23.32 (6.3)	23.08	17.38 (6.0)	18.84	29.26 (6.5)	25.32	-8.4***
(2020년 조사)	25.02	30.14	19.97	29.31	30.06	30.15	-5.4***

* $p < .05$, *** $p < .001$.

주: %는 일과 총 시간에서 각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의 종류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하였다. 주간계획안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간 계획안 51.3%, 일일계획안 49.1%, 연간계획안 46.2% 순이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모든 형태의 계획안 작성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연간 계획안의 작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유치원의 경우 주간, 월간, 일일, 연간 계획안 순으로 많이 작성하였으나, 어린이집의 경우는 주간, 일일, 월간, 연간계획안 순으로 작성하여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일일, 주간, 연간계획안 작성은 어린이집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월간계획안 작성은 유치원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18〉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일일 계획안	주간 계획안	월간 계획안	연간 계획안	작성하지 않음	(수)
(2020년 조사)	56.4	69.1	55.9	66.7	1.1	(1,000)
전체	49.1	60.5	51.3	46.2	0.6	(1,000)
유치원	47.8	54.6	53.6	44.0	1.0	(500)
어린이집	50.4	66.4	49.0	48.4	0.2	(500)

다음은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의 형태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로, 일과에 따라 놀이와 활동계획을 작성한다는 응답이 6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 기록 후 마지막에 향후 계획 기술 48.9%, 놀이 흐름에 따라 자료 등 명시 45.4%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존 계획안 사용과 놀이 기록 후 마지막에 향후 계획을 기술하는 비율은 다소 줄어든 반면, 놀이 흐름에 따라 자료를 명시하는 것과 일정한 형식 없이 놀이에 따라 자유 기재하는 비율은 다소 증가하였다.

〈표 3-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작성하는 계획안의 형태(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기존의 계획안 사용	일과에 따라 놀이와 활동 계획	놀이 기록 후 마지막에 향후 계획 기술	놀이 흐름에 따라 자료 등 명시	일정한 형식 없이 놀이에 따라 자유 기재	기타	(수)
(2020년 조사)	10.8	62.2	51.1	41.6	12.8	0.8	(981)
전체	7.5	61.9	48.9	45.4	14.4	0.6	(989)
유치원	4.5	59.3	49.2	43.1	18.7	1.0	(492)
어린이집	10.5	64.4	48.7	47.7	10.1	0.2	(497)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종이상자, PET병 등 재활용품이 78.0%로 가장 많았고, 나무, 흙, 돌 등 자연물이 55.2%, 상업화된 교재교구 38.9%, 교사 제작 교재교구 25.2%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경향은 비슷하나 모든 자료의 활용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나무, 흙, 돌 등 자연물의 활용과 종이상자, PET병 등 재활용품의 활용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속 기관에 관계없이 활용하는 놀이자료의 순서는 동일하였으나 나무, 흙, 돌 등 자연물은 유치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교사 제작 교재교구를 활용하는 비율은 어린이집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3-20〉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활용하는 놀이자료(복수응답): 교사

단위: %(명)

구분	나무, 흙, 돌 등 자연물	종이상자, PET병 등 재활용품	교사 제작 교재교구	상업화된 교재교구	기타	계(수)
(2020년 조사)	25.4	46.8	10.4	17.2	0.3	(1,000)
전체	55.2	78.0	25.2	38.9	2.6	(1,000)
유치원	62.4	78.6	16.4	39.2	3.4	(500)
어린이집	48.0	77.4	34.0	38.6	1.8	(500)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용 중 교수·학습에 대한 실천 정도를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원장은 전체적으로 3.51~3.62점으로 상당히 높게 평정하였으며, 교사는 3.41~3.54점으로 평정하여 원장의 분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였으나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원장의 경우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는 항목에 대해 가장 높게 평정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와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원장과는 달리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는 항목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으로 평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의 순으로 높게 평정하였다.

원장과 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평정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 내용을 더 잘 실천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1〉 개정 누리과정 교수·학습 내용의 실천 정도: 원장과 교사

단위: 점, %(명)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①	전체	3.61	0.50	(1,000)	3.54	0.50	(1,000)
	유치원	3.74	0.45	(500)	3.64	0.48	(500)
	어린이집	3.47	0.51	(500)	3.45	0.51	(500)
	<i>t</i>	8.9***			6.0***		
②	전체	3.62	0.49	(1,000)	3.53	0.52	(1,000)
	유치원	3.74	0.44	(500)	3.62	0.51	(500)
	어린이집	3.50	0.50	(500)	3.45	0.51	(500)
	<i>t</i>	8.1***			5.3***		
③	전체	3.57	0.51	(1,000)	3.44	0.53	(1,000)
	유치원	3.68	0.48	(500)	3.52	0.53	(500)
	어린이집	3.46	0.53	(500)	3.37	0.52	(500)
	<i>t</i>	6.7***			4.5***		
④	전체	3.56	0.50	(1,000)	3.47	0.52	(1,000)
	유치원	3.69	0.47	(500)	3.56	0.50	(500)
	어린이집	3.43	0.50	(500)	3.38	0.51	(500)
	<i>t</i>	8.5***			5.7***		



구분		원장			교사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⑤	전체	3.53	0.52	(1,000)	3.41	0.52	(1,000)
	유치원	3.65	0.49	(500)	3.49	0.52	(500)
	어린이집	3.41	0.52	(500)	3.32	0.51	(500)
	<i>t</i>	7.6***			5.0***		
⑥	전체	3.57	0.52	(1,000)	3.49	0.53	(1,000)
	유치원	3.67	0.48	(500)	3.57	0.52	(500)
	어린이집	3.47	0.53	(500)	3.41	0.52	(500)
	<i>t</i>	6.3***			4.7***		
⑦	전체	3.51	0.53	(1,000)	3.41	0.52	(1,000)
	유치원	3.61	0.52	(500)	3.50	0.52	(500)
	어린이집	3.41	0.52	(500)	3.32	0.51	(500)
	<i>t</i>	6.1***			5.3***		

*** $p < .001$.

주: ①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②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③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④ 유아와 유아,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⑥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⑦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하는 내용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유사하게 유아 놀이가 82.4%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유아와의 상호작용 6.7%, 유아 발달 6.6% 등의 순이었다. 소속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22〉 개정 누리과정 운영 관련 평가 내용: 교사

								단위: %(명)
구분	유아 놀이	유아 발달	일과 운영	실내외 놀이공간	놀이 자료	유아와의 상호작용	기타	계(수)
1순위 (2020년 조사)	81.0	6.0	3.3	0.7	1.7	7.1	0.2	100.0 (1,000)
전체	82.4	6.6	1.8	0.8	1.6	6.7	0.1	100.0 (1,000)
유치원	82.6	7.2	1.4	0.8	1.0	6.8	0.2	100.0 (500)
어린이집	82.2	6.0	2.2	0.8	2.2	6.6	0.0	100.0 (500)
$\chi^2(df)$	N/S							

구분	유아 놀이	유아 발달	일과 운영	실내외 놀이공간	놀이 자료	유아와의 상호작용	기타	계(수)
1순위+2순위 (2020년 조사)	89.8	27.2	10.7	3.7	16.1	51.4	0.7	(1,000)
전체	92.5	26.9	9.5	5.0	17.2	48.8	0.1	(1,000)
유치원	93.2	29.0	9.6	4.2	12.0	51.8	0.2	(500)
어린이집	91.8	24.8	9.4	5.8	22.4	45.8	0.0	(500)

주: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유아를 평가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1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관찰기록이 77.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진, 동영상 10.1%, 놀이결과물, 작품 8.7% 등의 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 결과를 함께 살펴보면 관찰기록이 9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결과물이나 작품 46.2%, 사진과 동영상 44.3%,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3〉 유아 평가 방법: 교사

단위: %(명)							
구분	관찰 기록	놀이결과물, 작품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표준화된 검사	사진, 동영상	기타	계(수)
1순위 (2020년 조사)	77.8	8.5	3.0	0.3	10.3	-	100.0 (998)
전체	77.0	8.7	3.0	0.1	11.1	0.1	100.0 (1,000)
유치원	75.6	8.2	2.0	0.2	14.0	0.0	100.0 (500)
어린이집	78.4	9.2	4.0	0.0	8.2	0.2	100.0 (500)
$\chi^2(df)$	N/S						
1순위+2순위 (2020년 조사)	91.5	49.7	17.0	1.8	39.8	-	(998)
전체	91.8	46.2	15.9	1.5	44.3	0.3	(1,000)
유치원	91.0	43.8	10.2	0.6	54.4	0.0	(500)
어린이집	92.6	48.6	21.6	2.4	34.2	0.6	(500)

주: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전체의 90.2%에 달하였으며,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증가하였다. 영향을 미친 정도는 4점 만점 기준 3.25점으로 전년도 3.50점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매우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교사보다는 유치원 교사에게서 많이 나타났으며, 평정 점수 또한 유치원 교사 3.33점, 어린이집 교사 3.16점으로 유치원 교사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3-24〉 코로나19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 정도: 교사

구분	전혀 영향을 않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2020년 조사)	1.4	6.0	33.8	58.8	100.0	(1,000)	3.50	0.67
전체	1.2	8.6	54.4	35.8	100.0	(1,000)	3.25	0.66
유치원	1.4	8.4	45.8	44.4	100.0	(500)	3.33	0.69
어린이집	1.0	8.8	63.0	27.2	100.0	(500)	3.16	0.61
$\chi^2(df)/t$	34.6(3)***				4.1***			

*** $p < .001$.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나 휴원 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전체의 35.9%가 원격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유치원의 경우 46.6%로 22.1%인 어린이집 보다 더 높았다. 부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미취업 부모의 자녀가 원격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라서도 대도시 지역의 경험 비율이 41.3%로 가장 높고, 읍면지역의 경험 비율이 26.3%로 가장 낮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놀이꾸러미나 원격교육 경험 또한 전혀 없이 휴원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7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어린이집 재원 유아의 비율이 유치원 재원 유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사립법인 재원 유아의 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립단설 재원 유아의 휴원 비율이 가장 낮았다. 휴원 경험 유무는 부모의 취업 여부나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3-25〉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교육 및 휴원 경험: 부모

단위: %(명)

구분	원격교육		휴원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35.9	64.1	72.0	28.0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46.6	53.4	68.7	31.3	100.0 (562)
어린이집	22.1	77.9	76.3	23.7	100.0 (438)
$\chi^2(df)$	64.1(1)***		7.0(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46.6	53.4	54.8	45.2	100.0 (73)
공립병설	49.6	50.4	69.1	30.9	100.0 (123)
사립법인	50.6	49.4	77.5	22.5	100.0 (160)
사립개인	41.7	58.3	66.5	33.5	100.0 (206)
$\chi^2(df)$	3.4(3)		12.8(3)**		
취업여부					
취업	33.1	66.9	71.3	28.7	100.0 (722)
미취업	43.2	56.8	73.7	26.3	100.0 (278)
$\chi^2(df)$	8.8(1)**		0.6(1)		
지역					
대도시	41.3	58.7	73.9	26.1	100.0 (383)
중소도시	34.9	65.1	70.2	29.8	100.0 (450)
읍/면	26.3	73.7	72.5	27.5	100.0 (167)
$\chi^2(df)$	11.6(2)**		1.4(2)		

** $p < .01$, *** $p < .001$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걱정되는 점을 조사하였다. 전체의 23.1%의 부모들은 사회성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가장 걱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의 미디어 시청이 과도할까봐 18.1%, 자녀의 일상생활 습관이 무너질까봐 17.4%,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15.1%, 원격교육 시기 동안 돌봄 공백이 걱정되어서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6〉 원격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장 걱정되는 점: 부모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계(수)
전체	15.1	17.4	8.7	18.1	23.1	11.3	4.2	1.9	0.2	100.0 (1,000)
유치원	16.4	17.4	7.8	17.4	24.6	10.5	4.4	1.4	-	100.0 (562)
어린이집	13.5	17.4	9.8	18.9	21.2	12.3	3.9	2.5	0.5	100.0 (438)
$\chi^2(df)$	N/S									

주: 1) ①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서 ② 자녀의 일상생활 습관이 무너질까봐 ③ 등원하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서 자녀가 등원을 거부할까봐 ④ 자녀의 미디어 시청이 과도할까봐 ⑤ 자녀의 사회성 발달(또래 관계)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봐 ⑥ 원격교육 시기 동안 돌봄 공백이 걱정되어서 ⑦ 자녀가 원격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자신이 없어서 ⑧ 자녀의 신체적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봐 ⑨ 기타

2)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4)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변화 인식

놀이 중심의 누리과정으로 개정된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이 변화되었음을 체감하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5%의 부모가 변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하여서 2020년 54.0%보다는 조금 높았다. 유치원 유형에 따라서는 공립단설 부모의 체감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립병설 69.9%, 사립개인 55.8%, 사립법인 51.3%로 모든 유형에서 변화를 체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부모 특성에 따라서 미취업 부모의 66.2%, 전문대졸 부모의 71.2%가 변화를 체감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소득이 349만원 이하인 가구의 체감 비율이 68.7%로 가장 높았고, 650만원 이상인 가구의 체감 비율이 48.6%로 가장 낮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체감 비율이 74.3%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59.8%, 대도시 52.7% 순이었다.

〈표 3-27〉 누리과정 운영 변화 체감: 부모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2020년 조사)	54.0	46.0	100.0 (1,000)
전체	59.5	40.5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59.6	40.4	100.0 (562)
어린이집	59.4	40.6	100.0 (438)
$\chi^2(df)$	0.06(1)		
유치원 유형			
공립단설	71.2	28.8	100.0 (73)
공립병설	69.9	30.1	100.0 (123)
사립법인	51.3	48.8	100.0 (160)
사립개인	55.8	44.2	100.0 (206)
$\chi^2(df)$	15.395(3)**		
취업여부			
취업	56.9	43.1	100.0 (722)
미취업	66.2	33.8	100.0 (278)
$\chi^2(df)$	7.145(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61.5	38.5	100.0 (104)
전문대졸	71.9	28.1	100.0 (228)
4년제대학졸	54.6	45.4	100.0 (548)
대학원졸 이상	56.7	43.3	100.0 (120)
$\chi^2(df)$	20.742(3)***		
가구소득			
349만원 이하	68.7	31.3	100.0 (214)
350~499만원	61.3	38.7	100.0 (261)
500~649만원	60.4	39.6	100.0 (280)
650만원 이상	48.6	51.4	100.0 (245)
$\chi^2(df)$	20.083(3)***		
지역			
대도시	52.7	47.3	100.0 (383)
중소도시	59.8	40.2	100.0 (450)
읍/면	74.3	25.7	100.0 (167)
$\chi^2(df)$	22.355(2)***		

* $p < .05$.

부모를 대상으로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기관에서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각 항목별로 조사하였다. 하루 일과가 변화하였다고 느끼는 비율은 전체의 89.9%이었으며, 주간계획안이나 가정통신문 등의 문서 양식이 변화되었다고 느끼는 비율은 80.3%로 나타났다. 또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느끼는 응답자는 81.8%이었으며, 부모와 기관의 소통방식이나 내용의 변화를 느낀 비율은 75.2%로 나타났다. 끝으로 놀이나 활동 내용의 변화를 느낀 응답자는 93.7%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부모는 모든 항목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3-28〉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기관의 변화 정도: 부모

단위: %(명)

구분	전혀 변화하지 않음	별로 변화하지 않음	어느 정도 변화함	매우 많이 변화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하루일과							
전체	0.2	9.9	76.6	13.3	100.0 (595)	3.03	0.49
유치원	0.3	9.9	75.8	14.0	100.0 (335)	3.04	0.50
어린이집	0.0	10.0	77.7	12.3	100.0 (260)	3.02	0.47
$\chi^2(df)/t$	N/S					0.3	
주간계획안이나 가정통신문 등의 문서 양식							
전체	0.7	19.0	60.0	20.3	100.0 (595)	3.00	0.65
유치원	0.6	17.3	60.3	21.8	100.0 (335)	3.03	0.64
어린이집	0.8	21.2	59.6	18.5	100.0 (260)	2.96	0.65
$\chi^2(df)/t$	N/S					1.4	
물리적 환경							
전체	0.8	17.3	61.0	20.8	100.0 (595)	3.02	0.65
유치원	0.9	17.0	61.2	20.9	100.0 (335)	3.02	0.65
어린이집	0.8	17.7	60.8	20.8	100.0 (260)	3.02	0.65
$\chi^2(df)/t$	N/S					0.1	
부모와 기관의 소통방식, 내용 등							
전체	1.0	23.7	57.6	17.6	100.0 (595)	2.92	0.67
유치원	1.5	26.0	55.5	17.0	100.0 (335)	2.88	0.69
어린이집	0.4	20.8	60.4	18.5	100.0 (260)	2.97	0.64
$\chi^2(df)/t$	N/S					-1.6	
놀이나 활동 내용							
전체	-	6.2	64.0	29.7	100.0 (595)	3.24	0.55
유치원	-	6.0	63.9	30.1	100.0 (335)	3.24	0.55

구분	전혀 변화하지 않음	별로 변화하지 않음	어느 정도 변화함	매우 많이 변화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어린이집	-	6.5	64.2	29.2	100.0 (260)	3.23	0.55
$\chi^2(df)/t$	0.120(2)					0.3	

주: 2020년도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변화 여부 인식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봄. 변화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하루 일과 37.4%, 문서 66.7%, 환경 20.0%. 분위기 42.6%였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은 5.2%로 나타났다.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기관의 변화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장과 교사 모두 계획안, 평가양식 등 문서의 변화가 3.35점과 3.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물리적 환경, 하루 일과, 조직문화 순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응답한 조직문화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보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을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다른 특성에 따라서는, 유치원 원장의 경우 공립단설이 사립개인보다 평정점수가 높았고, 계획안, 평가양식 등 문서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공립단설이 사립법인과 개인보다 평정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3-2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변화: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하루 일과		계획안, 평가양식 등 문서		물리적 환경		조직문화		계(수)
원장									
전체	3.16	0.60	3.35	0.60	3.18	0.61	3.08	0.65	100.0 (1,000)
유치원	3.23	0.61	3.48	0.57	3.27	0.61	3.20	0.67	100.0 (500)
어린이집	3.08	0.59	3.21	0.59	3.08	0.60	2.97	0.62	100.0 (500)
$\chi^2(df)$	3.7***		7.3***		5.0***		5.8***		
교사									
전체	3.05	0.64	3.30	0.67	3.08	0.66	2.86	0.71	100.0 (1,000)
유치원	3.15	0.66	3.43	0.64	3.16	0.68	2.90	0.74	100.0 (500)
어린이집	2.95	0.59	3.17	0.67	2.99	0.64	2.82	0.68	100.0 (500)
$\chi^2(df)$	5.0***		6.2***		4.0***		1.8		

*** $p < .001$.

주: 2020년도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변화 여부 인식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봄. 원장은 교사의 역할이 변화했다는 응답이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서 34.7%, 물리적 환경 12.0%, 하루 일과 10.8% 순이었음. 교사는 문서가 변화했다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사의 역할 28.2%, 하루일과 15.8%, 물리적 환경 14.2% 순이었음.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변화에 대한 원장의 인식을 4점 척도로 살펴본 결과, 기관장 역할 3.28점, 교육철학 3.24점, 전문성 제고 노력 3.20점, 유아와의 관계 3.09점, 교사와의 관계 2.98점, 부모와의 관계 2.92점, 업무시간 분배 2.90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 원장의 점수가 어린이집 원장의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30〉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변화: 원장

단위: %(명)

구분	교육 철학		기관장 역할		업무시간 분배		교사와의 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4	0.63	3.28	0.61	2.90	0.75	2.98	0.69
유치원	3.32	0.61	3.35	0.60	2.99	0.77	3.10	0.69
어린이집	3.16	0.63	3.21	0.60	2.81	0.72	2.86	0.67
<i>t</i>	4.1***		3.7***		3.7***		5.5***	
구분	유아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전문성 제고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9	0.69	2.92	0.69	3.20	0.61	(1,000)	
유치원	3.18	0.69	3.01	0.70	3.26	0.60	(500)	
어린이집	3.01	0.68	2.83	0.68	3.14	0.61	(500)	
<i>t</i>	4.1***		4.0***		3.3**			

주: 2020년도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변화 여부 인식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봄. 변화했다는 응답은 교육철학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관장 역할 29.9%였음.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교사 역할이 3.26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3.25점, 교육철학 3.24점, 전문성 제고 노력 3.14점, 유아와의 관계 3.11점, 업무 분배 2.89점, 학부모와의 관계 2.73점, 동료와의 관계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 분배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차이가 나타나, 교육철학, 교사역할, 교육과정 운영, 동료와의 관계, 유아와의 관계, 전문성 제고 노력은 유치원 교사의 점수가 높았고, 원장과의 관계만이 어린이집 교사의 점수가 더 높았다.

〈표 3-31〉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교사의 변화: 교사

단위: %(명)

구분	교육 철학		교사 역할		교육과정 운영		업무 분배		원장과의 관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24	0.59	3.26	0.59	3.25	0.59	2.89	0.78	2.55	0.76
유치원	3.32	0.59	3.31	0.60	3.32	0.60	2.92	0.82	2.48	0.78
어린이집	3.16	0.57	3.20	0.57	3.18	0.57	2.86	0.74	2.61	0.73
$\chi^2(df)$	4.4***		3.0**		3.9***		1.2		-2.6**	
구분	동료와의 관계		유아와의 관계		학부모와의관계		전문성 제고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65	0.77	3.11	0.67	2.73	0.72	3.14	0.59	(1,000)	
유치원	2.70	0.81	3.18	0.68	2.73	0.72	3.22	0.60	(500)	
어린이집	2.60	0.73	3.04	0.65	2.72	0.73	3.07	0.56	(500)	
$\chi^2(df)$	2.1*		3.2**		0.3		4.2***			

주: 2020년도 조사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변화 여부 인식을 복수응답으로 물어봄. 변화했다는 응답은 교사의 역할이 3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교육철학 34.6%, 교육과정운영 8.5%, 학부모와의 관계 5.8% 순이었음.

다음은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업무시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이다.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시간이 다소 늘어났다는 응답은 5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준비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응답도 26.1%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준비시간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3.5%로 매우 소수였고,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은 13.2%로 나타났다.

활동 준비시간의 경우, 늘어났다는 응답이 45.1%, 줄어들었다는 응답이 25.98%,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29.0%로 준비시간이 늘어났다고 인식하는 비율보다는 줄어들거나 변화가 없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차이가 나타나 준비시간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유치원 교사의 비율이 어린이집 교사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준비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계획 및 평가 문서 작성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64.1%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1.7%,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14.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속기관에 따라 차이를 보여 늘어났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유치원 교사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의 경우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은 55.0%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나 변화가 없다는 응답 또한 43.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속기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의 경우 늘어났다고 응답한 비율이 76.4%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21.12%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였다. 이 또한 소속기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잡무 처리 시간이 늘어났다는 응답은 63.6%,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0.9%로 나타났으며,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5%로 매우 낮은 비율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20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준비시간이 늘어났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줄어들었다는 응답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비율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3-32〉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업무시간의 변화: 교사

단위: 점(명)

구분		많이 줄어들	다소 줄어들	변화 없음	다소 늘어남	많이 늘어남	계(수)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 시간	(2020년 조사)	0.9	5.4	19.8	54.8	19.1	100.0 (1,000)
	전체	0.6	2.9	13.2	57.1	26.2	100.0 (500)
	유치원	0.4	2.6	14.2	56.6	26.2	100.0 (500)
	어린이집	0.8	3.2	12.2	57.6	26.2	100.0 (500)
	$\chi^2(df)$	N/S					
활동 (이야기나누기 등) 준비 시간	(2020년 조사)	5.9	22.5	36.3	29.1	6.1	100.0 (1,000)
	전체	3.7	22.2	29.0	33.9	11.2	100.0 (500)
	유치원	5.2	24.8	28.6	29.2	12.2	100.0 (500)
	어린이집	2.2	19.6	29.4	38.6	10.2	100.0 (500)
	$\chi^2(df)$	16.6(4)**					
계획 및 평가 문서 작성 시간	(2020년 조사)	3.6	19.0	25.9	37.8	13.7	100.0 (1,000)
	전체	1.6	12.6	21.7	42.3	21.8	100.0 (500)
	유치원	2.4	15.0	20.6	39.6	22.4	100.0 (500)
	어린이집	0.8	10.2	22.8	45.0	21.2	100.0 (500)
	$\chi^2(df)$	11.0(4)*					

구분		많이 줄어듦	다소 줄어듦	변화 없음	다소 늘어남	많이 늘어남	계(수)
부모와 소통하는 시간	(2020년 조사)	-	2.1	53.3	35.6	9.0	100.0 (1,000)
	전체	0.7	2.2	43.1	41.7	12.3	100.0 (500)
	유치원	0.8	2.0	42.2	43.0	12.0	100.0 (500)
	어린이집	0.6	2.4	44.0	40.4	12.6	100.0 (500)
	$\chi^2(df)$	N/S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	(2020년 조사)	0.2	2.8	32.0	49.6	15.4	100.0 (1,000)
	전체	0.7	1.7	21.2	57.6	18.8	100.0 (500)
	유치원	1.0	2.4	21.2	54.8	20.6	100.0 (500)
	어린이집	0.4	1.0	21.2	60.4	17.0	100.0 (500)
	$\chi^2(df)$	N/S					
잡무 처리 시간	(2020년 조사)	1.3	6.2	38.2	37.1	17.1	100.0 (1,000)
	전체	0.8	4.7	30.9	42.3	21.3	100.0 (500)
	유치원	1.4	3.6	33.6	38.8	22.6	100.0 (500)
	어린이집	0.2	5.8	28.2	45.8	20.0	100.0 (500)
	$\chi^2(df)$	N/S					

* $p < .05$, *** $p < .001$.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해 유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원장과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원장과 교사 모두 주도성 증대를 꼽은 비율이 51.4%와 51.8%로 유사하게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의성 증대가 각각 27.9%, 36.9%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원장의 경우 7% 미만, 교사의 경우 3% 미만의 비율을 보였으며, 변화가 없었다는 응답도 원장 3.7%, 교사 3.0% 나타났다. 2020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원장 인식의 경우 건강 증진, 감성 증대, 배려심 증대라는 응답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주도성 증대와 창의성 증대라는 응답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다. 교사의 경우, 주도성 증대, 감성 증대, 배려심 증대라는 응답비율은 다소 증가하고, 건강 증진이라는 응답과 변화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표 3-3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유아의 변화: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건강 증진	주도성 증대	창의성 증대	감성 증대	배려심 증대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2.1	54.6	29.8	2.9	3.6	0.4	6.7	100.0 (1,000)
전체	4.4	51.6	27.9	6.6	5.4	0.4	3.7	100.0 (1,000)
유치원	5.2	50.4	26.4	9.2	5.6	0.4	2.8	100.0 (500)
어린이집	3.6	52.8	29.4	4.0	5.2	0.4	4.6	100.0 (500)
$\chi^2(df)$	N/S							
교사 (2020년 조사)	2.0	49.6	36.2	1.9	2.9	0.4	7.1	100.0 (1,000)
전체	0.9	51.8	36.9	2.8	4.3	0.3	3.0	100.0 (1,000)
유치원	0.8	55.6	35.4	2.8	2.2	0.2	3.0	100.0 (500)
어린이집	1.0	48.0	38.4	2.8	6.4	0.4	3.0	100.0 (500)
$\chi^2(df)$	N/S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변화하였다고 느끼는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9.1%의 부모가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인식하였고, 39.8%는 변화가 없다고 느꼈으며,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응답도 1.1% 존재하였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한 반면 변화가 없다거나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다소 감소하였다.

〈표 3-34〉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의 변화: 부모

단위: %(명)

구분	긍정적으로 변화	변화없다	부정적으로 변화	계(수)
(2020년 조사)	52.1	46.1	1.8	100.0 (1,000)
전체	59.1	39.8	1.1	100.0 (1,000)
유치원	59.6	39.1	1.2	100.0 (562)
어린이집	58.4	40.6	0.9	100.0 (438)
$\chi^2(df)$	N/S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누리과정 개정되면서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느낀 부모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변화 내용을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응답이 64.6%로 가장 많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응답이 37.1%,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응답이 33.5%,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고 한다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다. 이 밖에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23.4%,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비율은 21.2%이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증가했다는 응답만 증가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하였다. 자녀의 소속기관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면, 유치원 이용 부모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가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유치원에 더 가고 싶어 하고 건강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 시도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더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비율이 유치원 이용 부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35〉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복수응답): 부모

단위: %(명)

구분	더 건강해짐	무엇이든 스스로 하려함	창의적 생각을 함	더 즐겁고 행복	타인에 대한 배려 증가	유치원/어린이집에 더 가고 싶어 함	기타	변화 없음	(수)
(2020년 조사)	25.5	40.5	40.7	64.3	21.5	48.0	0.8	1.0	(521)
전체	21.2	32.5	37.1	64.6	23.4	33.5	0.2	-	(591)
유치원	19.7	31.0	35.5	70.1	23.6	34.3	0.0	-	(335)
어린이집	23.0	34.4	39.1	57.4	23.0	32.4	0.4	-	(256)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놀려고만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말을 안 듣거나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는 응답도 각각 18.2%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기관유형에 따른 경향을 살펴보면, 누리과정 개정 이후 놀려고만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비교적 유사하였으나, 부모의 말을 안 듣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만이, 스트레스를 더 받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치원 이용 부모만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자녀의 부정적인 변화: 부모

구분	놀려고만 함	부모의 말을 안 들음	스트레스를 더 받음	기타	계(수)
전체	54.5	18.2	18.2	9.1	100.0 (11)
유치원	57.1	-	28.6	14.3	100.0 (7)
어린이집	50.0	50.0	-	-	100.0 (4)
$\chi^2(df)$	N/S				

주: 1)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2) 2020년 조사에서는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 주관식으로 조사함.

5)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데 경험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원장과 교사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들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 비율이 다소 증가한 수치이며, 원장보다 교사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또한 어려운 점으로 꼽은 비율이 높았으나, 원장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비율이 감소하였고, 교사의 경우는 유사하였다. 나머지 항목들은 소수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표 3-37〉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계(수)
원장 (2020년조사)	7.4	26.8	6.5	7.6	28.3	4.7	4.8	4.4	0.6	0.9	7.9	-	0.1	100.0 (1,000)
전체	5.0	19.8	6.1	9.4	32.7	5.3	2.8	6.4	1.1	2.5	8.3	-	0.6	100.0 (1,000)
유치원	5.8	15.4	6.8	10.6	33.6	4.6	2.6	8.0	0.8	1.8	9.2	-	0.8	100.0 (500)
어린이집	4.2	24.2	5.4	8.2	31.8	6.0	3.0	4.8	1.4	3.2	7.4	-	0.4	100.0 (500)
$\chi^2(df)$	N/S													
교사 (2020년조사)	6.8	15.4	6.8	7.1	36.5	8.1	6.7	5.6	0.3	2.4	3.9	-	0.4	100.0 (1,000)
전체	4.7	16.4	6.2	8.3	41.4	6.9	4.2	5.2	0.5	1.9	3.7	0.2	0.4	100.0 (1,000)
유치원	3.8	17.2	6.4	5.8	46.0	6.2	3.0	5.8	0.6	1.2	3.6	0.2	0.2	100.0 (500)
어린이집	5.6	15.6	6.0	10.8	36.8	7.6	5.4	4.6	0.4	2.6	3.8	0.2	0.6	100.0 (500)
$\chi^2(df)$	N/S													

주 1) 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②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③ 기관 고유 프로그램과의 조화 ④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⑥ 계획안과 평가 등 문서 작성 및 관리 ⑦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 부족 ⑧ 부가적인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⑨ 기관평가 대비 ⑩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⑪ 학부모의 이해 부족(학습에 대한 요구 등) ⑫ 기타

2)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놀이 외 학습적인 것을 요구한다는 응답이 39.5%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 20.3%, 바깥놀이나 대근육 활동 시간 확대 요구 12.5%로 나타났으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다는 응답도 12.1%이었다. 202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바깥놀이나 대근육 활동 시간 확대 요구는 다소 줄어든 반면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는 다소 증가하였다.

〈표 3-38〉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관한 학부모의 요구사항: 원장

단위: %(명)

구분	실내놀이 시간확대 요구	바깥놀이 / 대근육 활동시간 확대 요구	놀이 외 학습적인 것 요구	특별활동 에 대한 요구	친구와의 놀이/ 활동 증가 요구	기타	요구 사항 없음	계(수)
(2020년 조사)	2.0	15.6	44.6	15.6	-	0.9	21.3	100.0 (1,000)
전체	1.7	12.5	39.5	20.3	13.2	0.7	12.1	100.0 (1,000)
유치원	1.8	12.4	35.2	25.2	14.8	1.2	9.4	100.0 (500)
어린이집	1.6	12.6	43.8	15.4	11.6	0.2	14.8	100.0 (500)
$\chi^2(df)$	N/S							N/S

주: N/S는 셀 빈도 총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장의 경우 전년도에는 현장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에 대한 요구가 50%에 가까웠던 것에 비해 올해는 17.9%에 불과하였고, 심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컨설팅 확대가 27.2%를 차지하였다. 교사의 경우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현장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이 29.3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전년도 54.2%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심화 연수 제공이 24.7%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학습공동체 지원이 19.8%, 컨설팅 확대가 14.8%를 나타냈다.

〈표 3-39〉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 원장과 교사

단위: %(명)

구분	심화 연수 제공	컨설팅 확대	현장지원 자료 제작 및 보급	학습 공동체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기타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22.9	9.9	47.4	8.9	9.5	1.4	100.0 (1,000)
전체	37.5	27.2	17.9	10.7	6.3	0.4	100.0 (224)
유치원	43.3	21.6	10.3	15.5	9.3	0.0	100.0 (97)
어린이집	33.1	31.5	23.6	7.1	3.9	0.8	100.0 (127)
$\chi^2(df)$	N/S						
교사 (2020년 조사)	13.9	8.6	54.2	7.5	15.0	0.7	100.0 (1,000)
전체	24.7	14.8	29.6	19.8	11.1	-	100.0 (81)
유치원	18.2	11.4	27.3	27.3	15.9	-	100.0 (500)
어린이집	32.4	18.9	32.4	10.8	5.4	-	100.0 (500)
$\chi^2(df)$	N/S						

*** $p < .001$.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 대한 1순위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장의 경우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교육 강화 27.0%이었다. 교사의 경우도 원장과 경향은 대체로 유사하나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요구하는 비율은 54.9%로 더욱 높았다. 부모의 경우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실내외 환경 개선 30.4%, 누리과정 비용 지원 확대 13.2%로 나타났다.

〈표 3-40〉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1순위)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원장 (2020년 조사)	27.0	-	11.5	2.9	12.0	33.1	4.1	5.3	2.5	1.5		0.2	100.0 (1,000)
전체	14.5	2.1	12.1	8.8	4.9	40.4	5.7	6.6	0.8	1.7	2.1	0.3	100.0 (1,000)
유치원	12.4	3.4	12.8	8.6	5.2	38.0	6.4	9.0	0.8	1.2	1.8	0.4	100.0 (500)
어린이집	16.6	0.8	11.4	9.0	4.6	42.8	5.0	4.2	0.8	2.2	2.4	0.2	100.0 (500)
$\chi^2(df)$	N/S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계(수)
교사													
(2020년 조사)	11.4	-	9.7	3.6	11.4	47.5	5.8	7.5	1.2	1.6	-	0.4	100.0 (1,000)
전체	5.3	2.4	10.1	4.9	6.3	54.9	5.7	7.8	0.7	0.9	0.9	0.1	100.0 (1,000)
유치원	5.4	2.4	9.8	5.6	5.4	54.6	6.4	7.8	0.4	1.0	1.0	0.2	100.0 (500)
어린이집	5.2	2.4	10.4	4.2	7.2	55.2	5.0	7.8	1.0	0.8	0.8	0.0	100.0 (500)
$\chi^2(df)$	N/S												

주: 1) ① 교사 교육 강화 ② 원장 리더십 연수 제공 ③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④「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⑤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⑥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⑦ 보조인력 지원 ⑧ 문서 등 행정 ⑨ 기관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 ⑩ 누리과정포털(누리) 활성화 ⑪ 교사 전문성 제고 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⑫ 기타
2) 주: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표 3-41〉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 부모

단위: %(명)

구분	교사 교육 강화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누리과정 비용지원 확대	기타	계(수)
부모	9.4	30.4	37.9	8.7	13.2	0.4	100.0 (1,000)
유치원	9.4	30.4	39.0	7.3	13.5	0.4	100.0 (562)
어린이집	9.4	30.4	36.5	10.5	12.8	0.5	100.0 (438)
$\chi^2(df)$	N/S						

주: 1) N/S는 셀 빈도 충족이 안 되어 차이검증이 불가함을 의미함.
2) 2020년도 조사와 보기항목이 달라 2020년도 결과는 제시하지 않음.



4 개정 누리과정 운영 사례

유치원 6개원과 어린이집 6개소, 12개 기관의 개정 누리과정 실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장들은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인해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대부분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유아교육 철학에 동의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조직문화가 점차 지원, 소통, 협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교사들은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유아의 놀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량, 창의적 역량,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역량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사 간의 대화, 원내 장학, 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검색이나 핀터레스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진과 영상 등 놀이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현직 교사에게 친숙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 기회나 여건 마련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아의 선택과 시도를 존중하면서 유아와 민주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일과 운영에서도 놀이 시간의 확대, 대집단활동의 축소 및 활동과 놀이의 연계가 나타났으며, 유아들의 의사를 반영하였고, 계획안 문서가 축소되면서 유아의 놀이를 관찰 기록하여 가정과 연계하는 노력을 더 할 수 있었다. 놀이자료 또한 재활용품을 중심으로 비구조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아가 의도하는 방식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와 매우 잘 부합되어, 현장에서 누리과정 운영이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에 맞게 잘 안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넷째, 유치원 교사는 유아가 주도권을 가지는 놀이에서 유아들의 의사표현이 증가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표현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고, 어린이집 교사는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결정하거나 놀이자료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행위, 문제가 생겼을 때 자발적으로 해결하려는 행위 등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아들 간에 서로 의견교환이 활발해지고 다툼이 줄어들었으며, 정서적 여유와 안정감을 보이고 어린이집 생활 전반을 즐겁게 받아들인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라는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잘 부합되는 변화이다. 한편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반응은 다양하였는데, 가정연계가 강화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모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놀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모도 있었으며, 여전히 초등학교 준비를 이유로 학습적인 것을 원하는 부모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를 위한 노력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인력지원과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는 것이었다. 그 밖에 이론보다는 실제적 놀이 사례 중심의 연수, 교사들의 교육관 정립을 위한 연수, 관리자 대상의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 개별적인 요구에 부합되는 교육과정 컨설팅, 누리과정 관련 예산 지원 증가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2020년에 이어 현장의 가장 큰 요구는 인력지원과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제도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정책 제언

가. 정책 방향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은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2020년 1차년도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설정한 5가지를 그대로 차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김은영 외, 2020: 241).

첫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하여 기본적인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되 현장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둘째,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며, 스스로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발성을 유도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에서 유아의 참여를 확대하고, 놀이에서 유아의 주도성을 신장한다.

넷째,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제고를 통해 기관과 가정이 연계하고 협동한다.

다섯째,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상황과 미래사회 변화 속에서도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 정책 방안

2020년 연구 결과,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교사와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중요하며,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여건 개선 및 학부모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1차년도에는 법과 제도 측면, 행정 측면, 재정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표 5-1>과 같다. 2020년에 제안한 정책들의 많은 부분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 필요성에는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인 주제도 있다.

〈표 5-1〉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1차년도 연구 정책 방안(2020)

구분	정책 방안
법과 제도 측면	1)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단위 기관의 권한 강화 2) 누리과정 개정 방향에 따른 기관평가 개선 3)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인력 배치 4) 교사의 전문성 제고 관련 법령 개정: 자율성 강화 5) 원격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 측면	1)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지원 2)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운영 3)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연수 방법 개선 및 컨설팅 활성화 4)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및 개발 자료 공유 5) 현장 사례 공유의 장 활성화 6) 초중등 환경 개선 사업 및 생활 SOC 사업 연계 7) 원격교육 자료 개발과 환경 지원 및 교사와 부모 역량 제고 지원
재정 측면	1)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예산 확보 2) 개정 누리과정 운영 현장 실천사례 개발 및 공유를 위한 지원 예산 확보 3)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여건 개선 지원 예산 확보 4)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및 국민 대상 캠페인 지원 예산 확보

출처: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 242.
〈표 VI-2-1〉 정책 방안

2년차인 2021년에 전달체계 지원사업 조사, 누리과정 운영 사례조사, 누리과정 운영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원장(감), 학부모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는 2020년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인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배경, 원장(감)과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더 많지만 동시에 차이점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1차년도 연구에서 법과 제도 측면, 행정 측면, 재정 측면으로 나누어 포괄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면, 2021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정부와 전달체계 차원에서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기관과 교사의 배경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5-2〉와 같다.



〈표 5-2〉 정책 방안

구분	정책 방안
정부 차원 (교육부, 보건복지부)	가)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 마련 나) 인력 배치 및 기관 평가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다) 초·중등교육과정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부처 내 협력 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 및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연구 추진 마)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및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바)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전달체계 차원 (시·도교육청, 육아종합지원센터)	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나) 학습공동체 등 교사의 자율 연수 지원 다) 시범기관 운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 공유 및 연계

1) 정부 차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교육부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현장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연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1년에는 교육부 개발 자료를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대상으로 활용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유아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은 없으며, 누리과정을 포함하는 보육과정 지원 관련하여서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임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누리과정의 행정적인 차원(누리과정교사처우 개선비 지급, 누리과정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고 교원 대상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2020년 정책 방안에 제안한 것처럼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더 우선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처 차원의 주요 정책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가) 교사의 자율연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 마련

2020년, 2021년 연구결과가 공통적으로 말해주듯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다. 또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은 전통적인 장학이나 연수, 보수교육보다는 멘토링이나 맞춤형 컨설팅 형태의

지원, 교사 스스로 주도하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등의 방법이 더 유용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0년 연구에서는 교사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전문성 제고 활동들도 의무연수로 인정해주거나 학점이나 인센티브로 연계해 주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한 바 있다(김은영 외, 2020).

이와 연계하여 교사의 자율연수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연수은행제 시행을 제안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적용 초반에는 정부 주도의 연수가 누리과정 운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되지만,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 각자의 고민과 시도, 동료 교사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 및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주도의 연수와 장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공동체, 멘토링, 컨설팅, 원내장학 등 다양한 노력을 점수화하여 연수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의무연수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속 기관이나 개인의 특성에 따라 연수 경험의 편차가 있다.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하는 의무연수점수 제도를 마련하고 연수은행제를 통해 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의무연수를 위한 시간과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의무연수점수 이외에 자율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 노력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실제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전문성 지원을 위한 수석교사나 교사의 연수 시간을 대체해 줄 수 있는 순회교사 배치 등 교사의 자기 연수를 위한 여건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누리과정 연수나 보수교육을 의무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이러한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유연성과 융통성을 부여하여 정부 주도의 연수뿐 아니라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하는 모든 노력들을 연수은행제를 통해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일과시간이 길어서 교사의 자기 연수를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대체교사 지원 등을 통해 실제적인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연수은행제를 통해 정부가 지역, 유치원이나 교사의 배경에 따른 맞춤형 연수를 기획하지 않더라도 교사 스스로 다양한 연수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인력 배치 및 기관 평가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을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일관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 조정을 비롯한 인력 배치 개선이다.³⁾ 최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 대 유아 비율을 하향조정하여 시범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 주도의 실제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누리과정 운영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관 평가에 있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히 평가 내용은 간략화 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평가유형은 다양화하여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의 경우 연령별 학급당 유아 수는 시도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인원수를 정하여 이를 넘지 않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담임교사 외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수석교사, 순회교사, 대체교사 등의 인력과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인력 등 다양한 인력 배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사 대 유아 비율 하향 조정은 곧 기관 운영비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학급당 최대 인원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할 때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보전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학대 등의 이슈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하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향 조정된 기준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등의 부정적 이슈와 함께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의 질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비롯하여 어린이집 평가가 「2019 개정 누리과정」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평가에 있어서 법적 제한으로 유치원과 유사하게 지자체 중심의 자율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면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지표를 최소화하고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다양화하여 어린이집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다.

3) 법 개정 관련 상세한 내용은 2020년 1차년도 보고서 정책방안에 제시되어 있음(p. 249~254). 단기적으로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 현 배치 기준에 준하여 3세는 15명, 4세와 5세는 20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운영시간을 감안하여 3세는 15명에서 10명으로, 4세 이상은 20명에서 15명으로, 장애아 보육은 3명에서 2명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함. 중장기적으로는 학급당 교사 2인 배치 등을 통해 현행 대비 교사 대 유아 비율을 50% 정도 감축할 것을 제안함.

다) 초중등교육과정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부처 내 협력

누리과정은 3~5세를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므로, 초중등교육과정 지원과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나 학교 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관련 사업에 해당 기관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부처 내, 부처 간 협의와 요청 및 관련 예산 확보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미래교육을 위한 교원 전문성 제고 및 지원 사업, 초중등학교 환경개선 사업,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환경구축 및 기자재 지원 사업 등에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은 현재도 법상 학교로서 이러한 지원에 포함될 권리가 있으므로 부처 내의 협의를 통해,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굳이 협의하지 않더라도 학교 지원 사업에는 당연히 유치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3~5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누리과정 운영에 관해서는 유치원과 동등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도 다양하고 유보 간 갈등도 예상되지만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와 격차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 및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연구 추진

초중등교육과정의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성 관련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유아와 초등학생의 적정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이라는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개정한 첫 번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러한 맥을 이어간다면 초중등교육과정도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부처 내 과 차원에서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연계를 위해 구성 내용을 점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 뿐 아니라, 개정 작업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계를 위한 작업이 수행될 때 학부모는 초등학교 준비에 대한 걱정을 덜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도 운영에 대한 걱정 없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장애유아를 위한 개정 누리과정 적용에 대한 연구와 자료 개발도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집단 활동 감소로 이어져 교사와 장애유아 모두에게 더 편안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유아의 잠재성 개발을 위한 개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장애유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히 장애유아를 위한 의무교육기관이지만 장애유아 지원을 위한 교사 배치와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자료 개발은 유아교육 분야의 주도로 특수교육 분야와 협력하여 공동연구로 진행하는 것이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과정 이해에 기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결과물 산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마)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및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살펴보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유아기를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학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기본생활습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 충분한 놀이 순으로 나타났다.⁴⁾ 이러한 결과를 통해 누리과정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되었지만, 부모의 기대는 여전히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것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차원에서 학부모를 포함하여 국민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단기간의 홍보나 캠페인으로는 인식이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유아 부모 세대인 2030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홍보와 캠페인 콘텐츠에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부모들이 실제로 안심하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경쟁이 아닌 함께 가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4) 본 연구가 초등학교 입학 바로 전인 5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라 더 강하게 나왔을 수 있음.

더불어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비용지원정책 수혜를 위해서 유아에 대한 이해, 놀이에 대한 이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가정에서의 놀이지원 등을 포함하는 일정 시간의 연수를 이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실행하는 방식은 부모의 다양한 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대상 부모나 양육자가 참여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바)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도 전달체계의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시업의 유형, 예산, 대상 규모가 달라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편차가 예상된다. 본 연구자료를 기초로 각 시도별 지원의 격차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위한 재정과 인력 지원을 통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전달체계 담당자들과 원장(감)은 각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개정 누리과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전달체계 담당자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를 완화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지원청,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누리과정 담당자들의 누리과정 이해와 지원을 위한 심층연수와 워크숍을 추진하고 전문가와 연계하여 궁금한 점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감)을 대상으로는 누리과정 이해와 지원을 비롯하여 리더십에 대한 심층연수와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 교사들의 역량을 지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관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체계가 통합되거나 3~5세의 완전한 공교육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관련 사업에 대한 공동 지원이 요구된다. 누리과정 관련 사업이나 연수에 있어서는 두 부처가 공동 주최가 되어 유보 구별 없이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지만, 특히 공립과 사립, 국공립과 민간 등 설립유형별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관별 어려움과 요구 사항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요구된다. 유아교육이 누리과정이라는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공교육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사립이나 민간 기관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설립유형에 따른 국가의 지원 제도가 다르고 사립이나 민간 기관은 공교육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 영역에 속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공립 기관과 동등한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차별적인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동등하게 지원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메꾸어 줄 수 있도록 부처 차원의 예산 확보와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2) 전달체계 차원

유치원 전달체계인 17개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2020년에 이어 다양한 연수와 컨설팅, 학습공동체 지원 등을 통해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유형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전달체계별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체계 내에서도 시도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체계 이원화로 인한 차이는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이지만, 전달체계 차원에서는 시도 전달체계 자체에서 혹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활성화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개정 누리과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기관과 구성원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관별 특성을 먼저 진단하고 시작하는 전문가 컨설팅이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에 대해서 원장의 약 90%와 교사의 약 95%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 컨설팅이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누리과정 컨설팅은 시도교육청에서도 많이 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센터 대부분이 컨설팅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컨설팅 예산이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모든 기관에 맞춤형으로 긴밀하게 여러 번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운영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학습공동체 등 교사의 자율 연수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학습공동체, 멘토링, 원내 장학 등 교사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 연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는 활동은 원내 자율장학,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멘토링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 연수는 스스로 찾아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전달체계에서 학습공동체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원내 장학이나 멘토링 추진을 격려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를 배정한다면 이러한 자율 연수가 보다 활성화되어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 사업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학습공동체, 멘토링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컨설팅에 일정 부분 포함되었을 수 있지만 단일 사업으로는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길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자율연수는 더 어려울 수 있지만,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유인가 제공을 통해 교사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자율연수가 어려운 도서벽지에 있는 기관이나 원내 학습공동체 구성이 어려운 한 학급 기관일 경우 전달 체계 차원에서 원격지원 등을 통해 학습공동체, 전문가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기관의 교사라도 개별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 자율 연수를 위한 원격지원 등 추가 지원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시범기관 운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및 정보 공유

전달체계 차원에서 지역의 시범기관 사업을 통해 혹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역 교사들에게 참관의 기회와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누리과정 포털 i-누리를 통해 전국의 교사들과 자료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타 기관 참관이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은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교사들이 가장 선호한다. 그러나 타 기관을 참관할 기회는 많지 않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다.

우수사례 참관은 교사들이 가장 원하지만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교사들에게 다양한 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불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어려움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책정하여 시범운영을 위한 인력지원이나 업무 경감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범 운영기간을 1년 이내 단위보다는 2~3년 이상으로 길게 부여함으로써 좀 더 여유를 갖고 체계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 공유 및 연계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공유하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가 함께 지역 내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연수 및 컨설팅과 학습공동체 등 교사들을 지원하는데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몇 개 지역이 함께 전문가 풀을 공유할 수도 있다. 해당 지역의 연수를 함께 추진하고, 컨설팅과 학습공동체를 기관 구별 없이 함께 구성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연계하고 협력하는 해당 지역의 각 전달체계는 전문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해 전달체계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새로운 전문가를 양성할 수도 있다. 또한 각 전달체계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개발한 자료를 기관과 지역을 넘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함으로써 기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교사들이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풍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정부와 전달체계 차원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원에서도 기관의 철학과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 방향 공유를 위한 노력, 기관장의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지원, 원장(감) 자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의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모든 기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3~5세 모든 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토론문

이성희 |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권혜진 |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윤미경 |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신두원 |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송영태 | 학부모

김민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정경진 |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01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정책 방안 토론

이 성 희

공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유아교육현장은 유아중심과 놀이중심이라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를 3년으로 기획하고 수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2년차 과제는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실태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인식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현장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의 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방안이 내실 있게 제시되어서 앞으로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극복되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교사들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실제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부족하기 보다는 교육과정에 대해 아는 것을 자신의 교육과정 실천으로 체화하는데 서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는 스스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주체자가 되기 보다는 개정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열심히 전달받아 이행해야 했기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천해야 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자율성은 너무나도 낮설고 어렵습니다. 교사의 자율성은 교사 마음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교육과정 전문성에 기반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을 의미합니다(성원경·김민정·박신영·이성희·이춘자·전홍주, 2020). 이제껏 주어진 교육과정에 충실했던 교사들에게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생소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을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연구에서 교사의 자율성이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 교육과정 전문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를 향상하기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에 동감합니다. 2차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서 점차 안착되어가고 있으나, 인식변화나 지원요구 측면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 따라 공통되면서도 동시에 차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 방안 중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네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시도별 지역수준의 실정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년도 정책 제안 중 교육과정 운영의 지자체 및 기관의 권한 강화와 연계되는 것으로, 시도 교육청과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역 실정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에 적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충남의 유치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정규모이상의 공립단설과 사립유치원이 존재하나 시군별로 10명 이하의 소규모 학급이 전체 병설유치원의 65%에 이르고 매년 그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소규모학급은 혼합연령학급의 증가로 이어지고, 동시에 다문화가정 유아 및 장애유아 등 다양한 요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안착을 위해 지역교육생태계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지역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누리과정 담당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지역교육생태계의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관의 현실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대강화를 통해 교육과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전달체계 차원의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전달체계 차원에서 지역수준 누리과정편성운영지침 개발 연구, 지역수준 전문성 향상 제도 및 방법 연구,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교육과정 사례 연구 등이 필요하며 연구내용과 활용 결과 등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전달체계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긴밀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교사 중심의 컨설팅 협의체를 활용하거나 전달체계 담당자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콜로키움 및 세미나를 통해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기관의 특성과 맥락을 진단하고 지원하는 외부전문가 컨설팅도 유효하겠으나 동등한 위치에서 동료 교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컨설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는 놀이지원단은 의미 있는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현직 유치원 교사 41명으로 구성된 놀이지원단은 전문가를 통한 누리과정연수와 워크숍, 놀이사레나눔과 공동협의, 수업사례 및 환경 참관,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교사 스스로 잘 배우고 잘 알려주는 전문가가 되어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효능감 뿐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며 그 누구보다 교사들 가까이 가있는 지원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2021.10.01.) 교육과정을 오픈하며 어려움을 손쉽게 나눌 수 있는 놀이 지원단은 교사 간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지원 네트워크가 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발한 교육과정 운영의 교류와 시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교사들의 네트워크와 교류는 자율 연수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연수은행제를 통해 행정적 지원도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 담당자들과 원장, 교사들이 협력적으로 개정 누리과정을 구현해 갈 수 있고 공동 성장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범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기회가 있었듯이 지속적으로 누리과정의 안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 대화하고 해안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담당자, 원장, 교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책 제안에 언급된 바와 같이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 두 정부 부처의 공동 대응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개정 누리과정 지원과 연계한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동학대 근절 대책으로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법안 검토, 관련 정책연구 등이 이루어졌고,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부모교육’ 의무화는 2018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각적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누리과정의 이해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비용수혜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국가 중심, 행위자 중심의 접근으로 근본적으로 누리과정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누리과정의 성격에 따르면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을 명시하며 협력과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윤진(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가 동의하는 부모교육은 맞춤형 부모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 학부모가 자녀 양육을 위해 원하는 내용을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이루어지는 초·중등학교 급에서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영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부모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은 누리과정의 성격과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왜’ 의무화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초등



학교 준비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영유아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학업적 관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부모 인식 변화와 사회 구조 개선 등 전체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단기적인 인력 배치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행정적 지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학부모 모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낮아 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적용되면서 코로나 19가 발생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사상 초유의 교육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부분 등원이나 거리두기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했고 놀이 꾸러미 지원, 원격교육 등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보완해야 했습니다. 한 예로, 교사는 학부모 공개수업이나 참여수업을 위해 기존방식과 달리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내용을 계획해야 했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동영상 제작해야 했으며, 교원평가와 관련해 수업을 공개해야만하기 때문에 전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연구결과 교사들은 놀이 지원을 위한 준비시간, 계획 및 평가 문서 작성 시간,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간이 늘어났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반면, 잡무처리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과 연결해 볼 때 누리과정 개정에 따른 많은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책방안에서 제시한 수석교사, 순회교사, 대체 교사 등 실질적으로 교사가 누리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교사 대 유아수를 줄이고 학급 최대 크기를 제한하여 누리과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연령별 학급적정규모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만 0세 교사 대 영아비율 1:2(최대학급 크기 4명), 만 1세 1:3(최대학급크기 6명), 만 2세 1:5(최대학급크기 10명), 만 3세 1:10(최대학급 크기 20명), 만 4세 1:12(최대학급크기 24명), 만 5세 1:13(최대학급크기 26명)하여 학급당 교사수를 2인으로 확대 배치해 나가야 합니다(안혜정·유한나, 2017).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겠으나 이제 제 토론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2차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리고 오늘의 토론을 통해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이 발전하는데 모든 주체들에게 의미 있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교사, 원장, 지원체계 담당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무엇보다 어린이가 행복하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문헌

- 성원경·김민정·박신영·이성희·이춘자·전홍주(2020). 놀이지원 연수자료. 대전시교육청.
- 안혜정·유한나(2017). 유아교육기관의 학급 규모 고찰을 통한 정책적 함의. 한국보육지원 학회지, 13(1), 19-41.
- 이윤진(2018).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2018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2018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165-188.
- 충청투데이(2021.10.01.). 직접 배우고 전수하는 ‘놀이지원단’, 유치원도 ‘만족’. 9면.



NOTE

[illegible]

02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교사전문성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권 혜 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교육과정으로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이루어져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2차년도 모니터링은 1차도의 연장선상에서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실태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 인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교사의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누리과정 실행에 있어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교육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전문성 강화가 관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모니터링 초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교사의 전문성 및 지원 요구에 초점을 두어 토론하고자 한다.

「2019 개정 누리과정」 2차년도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안착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치원 6개과 어린이집 6개, 12개 기관의 개정 누리과정 실천사례 속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천사례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은 개정 누리과정의 시행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유아의 선택과 시도를 존중하면서 유아와 민주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실행이 유아의 권리 존중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장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를 지원하고자 하며,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었다고 인식하여 조직문화가 점차 지원, 소통, 협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도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개정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사 간의 대화, 원내 장학, 학습공동체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유튜브, 인스타그램, 구글 검색이나 핀터레스트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사진과 영상 등 놀이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적용하고 있었다. 이는 현직 교사에게 친숙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전문성 향상 기회나 여건 마련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특히 어린이집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의 온라인플랫폼인 'i-누리포털'보다는 개인이 운영하고 제공하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놀이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여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서 제시되고 있는 유아중심, 놀이중심 사례들이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자료라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i-누리포털이 국가수준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플랫폼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 공히 의미있는 온라인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원장과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장과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을 살펴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모두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전문성 향상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연수 참여, 전문성제고 노력,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용 중 교수·학습에 대한 실천 정도 등에서 일관되게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실행 및 인식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을 보면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유치원 원장의 30.8%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반면, 어린이집 원장의 15.3%만이 경험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사 역시누리과정과 관련된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유치원 교사 45.2%, 어린이집 교사 26.8%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자율 장학에 참여하는 유치원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참여하는 것 없다는 응답은 유치원 교사는 8.2%인 데 비해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는 26.6%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유치원 유형별로는 공립보다는 사립 유치원에서, 기관 규모가 100인 이하 시설에서 누리과정 실행과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항이 많아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유치원 유형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궁극적으로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교사전문성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업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전달 체계로서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고,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가 누리과정 집합연수 운영하는 것에 한정된 역할을 하였다. 또한 교육부에서 2020년 8종의 자료를 생산하고 누리과정포털인 i-누리에 탑재하여 유아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연구에서 언급하였으나, 탑재된 지원자료 모두 유치원을 대상으로 개발된 자료로 유아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유치원 전달체계인 시도교육청의 정부 지원 요구와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부 지원 요구의 차이(표 참조)에서도 드러난다. 어린이집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련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지원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달체계별 주요사업 및 관련요구사항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전달체계	- 17개 시도교육청	- 18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사업	-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	- 집합연수 - 누리과정 운영 컨설팅
관련 요구사항	- 개정 누리과정 지원전문가 전문성 신장 인력풀 운영 - 재정적인 지원 - 교사의 자발적 동기, 참여, 소통, 공유 강조하는 내용 -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 인식 개선 위한 범국민 대상 홍보	- 예산 지원 확대 및 전문적인 인력풀 운영 - 지속적인 소통, 표준 운영 모델이나 매뉴얼 개발 - 누리과정포털을 이용한 자료 공유에 대한 요구 - 원장 대상 연수 의무화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사업비 확보 노력 - 어린이집 평가제의 지속적인 개정 - 놀이중심 보육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자료개발, 보급 -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위한 국가적 지원

* 연구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원장과 교사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조사 결과에서 일관성 있게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천명하였으나, 누리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에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공통과정이었을 때와의 차이점을 체감하기 어려웠으며, 특히 교사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구진의 정책 제안 중 ‘초중등교육과정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부처 협력’을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향후 「2019 개정 누리과정」 지원 방향은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 100인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누리과정 집합연수 및 원격연수 외의 장학이나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2019 개정 누리과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상세하게 분석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지원조직이 있는 직장어린이집에서의 개정누리과정 실행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민간 어린이집에서의 누리과정 실행에 따른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의 개정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을 살펴보면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누리과정 실행으로 인한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에 대한 불안 및 초등학교 적응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나 교사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아중심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잘 실행하는 것이 초등학교 적응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 실행 2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직 부모가 인지하고 못하는 비율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40%에 육박한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참여하여 누리과정을 함께 실행해나갈 수 있는 현장의 실천 방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 누리과정의 성과와 교사전문성 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이와 함께 지난 2년간 휴원, 긴급돌봄, 재등원이 번갈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명확하지 않아서 개별 원과 교사의 판단에 의해 긴급돌봄 과정으로 쉽 위주의 운영을 한 곳에서부터 개정 누리과정을 충실히 적용한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편차가 크다. 개정 누리과정이 코로나 19 발생과 함께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이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미친 영향도 좀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 되어야 할 것이다.



NOTE

[illegible]

03

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정책세미나 토론회

윤 미 경

푸른아이세상어린이집 원장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2020년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교육기관에 안착되어 유아에게 놀이권과 행복권을 돌려줄 필요가 있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매우 동의하며 토론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의 개정 누리과정 적용 상황을 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 감사를 표한다. 기존의 누리과정 안에서 교사는 사전에 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 활동을 세부적으로 구성하여 유아들과 배움을 목표로 하는 놀이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존의 교육과정이 익숙했던 현장에서는 유아들의 자발적 놀이를 통한 배움을 중심으로 하는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면서 아직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다.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유아·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유아 교육과정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오던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처럼 개정 누리과정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는 유아·놀이 중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교육과정을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많은 교육 방법의 틀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익숙해진 틀을 깨고 새롭게 유아를 들여다보며 유아의 삶에서 발현되는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다. 이처럼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는 교육철학에 대한 확신과 실천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유아교육 현장을 위해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발표자가 언급한 정책방안에 동의하며 유아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민간어린이집에서의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 원장, 교사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인식과 이해 그리고 확신은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개정 누리과정이 적용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린이집은 장기간의 휴원과 긴급보육으로 운영이 되었고 경기도의



경우 21년 11월 1일에서야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침에 따라 휴원을 해제하였다. 이처럼 유아들이 불규칙하게 등원하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며 부모들의 이해까지 돕는 부모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어린이집 현장의 현실이다. 이처럼 부모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정교육 장기화와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부인 출입 금지 지침은 부모의 선택인 특별활동 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부모의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놀이중심 교육과정 실행과 부모가 주목하는 특별활동이 중지된 상황은 상급반으로 진급해야 할 원아가 영어유치원 등 학습 위주 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해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아의 보육료만으로 운영이 이루어지는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상황에서 원장들은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과 분절된 학습 중심의 운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 실행으로 부모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놀기만 할까봐 걱정하고 있고 부모의 기대는 여전히 초등학교 준비를 위한 학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발표자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부모교육의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발표자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발표자가 언급한 부분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정부 차원의 홍보와 캠페인 안에 유아기 부모가 즐겨 시청하는 육아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공익광고 등 좀 더 영향력 있는 매체를 포함하고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성을 알리는 내용도 포함하여 부모와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부모교육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현재 아이누리 포털의 부모교육 자료에 원장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의 교안이 추가되기를 바란다. 추가되는 교안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현장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며 경험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부모의 이해를 돕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되기를 바란다.

둘째, 원장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발표자는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어린이집 원장은 15.3%, 유치원 원장은 30.8%로 보고하였고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 대상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연수를 실시하여 유아교육의 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했다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이 출발선

부터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불편한 현실이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영유아들의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하나의 부처에서 담당하는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보통합이 실현되기 전에도 유아의 권리와 삶은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누리과정 개편의 주요 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사업과 지원을 계획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평등하게 고려하기를 바란다.

한편,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원장의 일반 직무연수에 개정 누리과정 심화 연수를 포함하기를 제안한다. 의무적으로 시간을 내어 수강해야 하는 원장 일반 직무연수에 반복되고 있는 기존의 직무연수 내용을 축소하고 개정 누리과정 심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원장의 교육과정 실행을 위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어서 원장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의 확대를 제안하고자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전문가 컨설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현장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 적절하게 컨설팅을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확대와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인 교사를 위해 보조교사지원, 교사 대 유아 비율 축소, 전문성 제고 관련 지원에 주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보조교사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민간어린이집에서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어지는 보육 업무이기 때문이다. 유아들의 놀이를 기록하고 다시 재방문하여 어떤 지원을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부터 연장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제한을 두고 배정하고 있어 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부족한 시간 안에서 교육과정 실행하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집마다 편성된 연장반에 부합하게 연장 보육교사를 모두 배정할 수 있도록 인력을 지원하고 이와 더불어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며 교실 안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리 보조교사가 각 기관에 편성된 유아반에 모두 배정될 수 있는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음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 낮추기를 제안한다. 이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적 요구에서 교사의 54.9%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조정을 요구한다는 발표자의 보고와



같이 유아·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기 위해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타당한 요구이다. 다만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고자 할 때는 그에 맞는 현실화된 보육료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전문성 제고이다. 개정 누리과정 방향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사 간의 교육과정 공유와 협력이 중요하므로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매년 교사와 원장의 학습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학습공동체의 개념마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학습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있어 혼란을 경험하는 교사들을 위해 전문가를 지원하여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공동체가 현장에서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한다. 전문가 컨설팅에 지속적인 학습공동체 지원을 포함한다면 교사들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각 교실에서 나타나는 놀이와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누리과정 실행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또 다른 제안은 어린이집마다 개정 누리과정 멘토 교사를 지정하는 것이다. 멘토 교사가 중심이 되어 동료 교사들과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멘토 교사에 대한 특별연수를 지원하고 지원을 통해 기관에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 운영되었을 때 교사들에게 수당으로 보상 하는 방안도 고려되기를 바란다.

본 토론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유아교육 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지원의 격차가 다르다는 것을 통감하게 되었다.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에는 유아의 평등권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는 지원의 평등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평등한 출발선이 지켜질 때 유아의 놀이권과 행복권을 온전히 유아의 것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유아들이 미래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관련된 각 부처는 유아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나아갈 길이 유보통합이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고민과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유보통합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유아교육 현장이 유아교육 기관의 설립 유형에 따라 그리고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과 지원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진행하는 이 토론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모색한 방안들이 개별 유아교육 기관에서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는데 실제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04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교사의 요청안

신 두 원

서울문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교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개정 누리과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아와의 질 높은 상호작용 증진

정해진 교육활동을 쫓아가며 일과를 보낼 때보다 개개인의 유아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따라서 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쉬워졌고, 유아들과 양질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맺을 수 있었다.

② 놀이를 통한 공통의 즐거움 경험

교사와 유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도 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유아들과 함께 공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새롭고 즐거운 놀이활동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③ 학부모와의 라포 형성

학부모와 더욱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만들어가며 가정에서 협조해야 할 일이 늘어나면서 소통의 기회가 늘었고, 유아들도 가정에 돌아가 즐거웠던 놀이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도 증가하였다(학부모들의 인식,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으로 예상됨).



④ 수업 준비의 부담감 완화

하루일과의 자율성을 둬으로써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졌다. 이전에는 20-30분 단위로 활동을 계획하고 계획에 맞게 활동을 진행하면서 하루에 적어도 2-3개의 대집단의 단위활동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으나, 개정 누리과정을 실시하면서 놀이 중간에 소·중집단으로 단위활동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고, 또 유아들의 흥미에 따라 즉각적인 집단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업 계획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교육의 실행과 계획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교육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절대적인 시간은 비슷하지만 그에 대한 부담감은 완화되었다.

⑤ 협력적인 동료관계

서로의 수업을 편안하게 공유하고 부족한 점은 서로 채워주면서 동료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늘어났다.

교사의 입장에서 경험한 개정 누리과정의 단점 및 개선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사 대 유아 비율의 한계점 해소

모든 유아들의 생각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낮아져야 한다. 만3세는 1:10, 만4세는 1:14, 만 5세는 1:16 정도의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며, 보조교사가 있을 경우 개정 누리과정의 취지에 적합한 교육을 이루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의 대부분에서 교실에서 한 가지 놀이주제로 꼭 한정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받았으나, 현실적으로 교사 한 명으로 여러 주제의 놀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② 행정업무의 과중함 해소

교사가 온전히 유아들의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교실에서 어떤 놀이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지원을 해주면 놀이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고민하고 탐색하기 위해서는 교사들과의 협의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고, 각종 연수를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행정업무에 우선적으로 임하다 보니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③ 학부모의 인식개선

유치원에서의 꾸준한 노력으로 현재 재원 중인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많은 우려를 보였고, 원아모집과 관련하여 학부모들과 여러 상담을 한 결과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만5세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 앞둔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부모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④ 교사의 전문성 향상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의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교사들의 교육적 자질이 동등하지 않고,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모든 교사들에게 균등한 개정 누리과정 연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수가 아니라 교사 개개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교원 학습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규모와 방법의 연수가 필요하다. 원내 동료장학도 필수적이지만, 이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 장학, 전문가 교내 초빙 등 소그룹 연수도 동반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교적 개정 누리과정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의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어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사로서 내가 하루하루 잘 나가고 있는지, 개정 누리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특히 놀이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교육의 목표를 놓치기 쉽다. 내가 이 놀이를 지원함으로써 이 유아들에게 어떤 교육적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 꾸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연수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⑤ 기관 관리자와의 관계

교사는 개정 누리과정을 적극 실천하고자 하지만,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관장의 요구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다. 병설유치원의 경우 학교장(감)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유아들의 모습이 단순 놀이라고 생각하거나, 학습자료 품의를 올릴 때, 교육적인 활동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의 요구에 따라 학습적인 활동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 뿐 아니라 관리자의 연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⑥ 보조인력의 전문성 제고

담임교사 뿐 아니라 에듀케어 강사, 교육실무사, 특수 보조 인력 등 교실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게 공통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 교실에서 원만한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다. 교실의 모두가 같은 교육가치관을 가지고 놀이 지원을 할 때, 교육의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⑦ 자기개발의 충분한 시간 확보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천이 어렵다. 각종 연수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자기개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05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학부모 제안

송 영 태

학부모

교육부가 2019 누리과정 개정 이후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안착을 돕고 각 기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점에 대해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으로 유아의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 배움을 찾아주는 교육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아기 자녀를 키우며 부모로서 유아의 주도성을 중심에 두고 놀이를 배움의 중심에 두는 개정 누리과정 취지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유아의 자발적인 놀이를 교육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면서 유아기에 경험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저 역시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로서 정책적으로 바라는 점을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재개념화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철학이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수십 년간 운영해온 사립유치원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공립 단설로 전환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가 생각했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누리과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누리과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선생님들 덕분에 현재 만족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획일적인 교육과정이 아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이 교육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유아들이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에서 교직원들의 사례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가 유아의 놀이를 발견하고 더 넓고 깊은 경험으로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적인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세반의 경우 유치원의 교사 대 유아 법정 비율은 1:24, 어린이집은 1:20입니다. 하루의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일상적인 경험과 놀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챙기는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유아의 놀이를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는 매우 어려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반영하여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리적 환경 개선의 측면에서는 유아 1인당 실내외 공간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이 축소됨으로써 공간의 문제가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습니 다만 유아의 일상과 놀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간의 확대 방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놀이시간의 확보, 놀이를 통한 배움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본 환경인 물리적 공간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아의 흥미, 욕구, 움직임의 특성을 반영하여 편안하고 창의적인 경험을 보장하는 물리적 공간의 재구성에 대한 노력이 기울여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셋째, 누리과정의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자료를 보면 놀이 중심으로 개정된 누리과정으로 인해 걱정되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의 과반수가 넘는 51.7%가 놀이만 하다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할지가 걱정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놀이를 존중하는 유치원에 보내면서 아이가 몰입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성과 자기주도성 그리고 사회성이 신장되는 것을 지켜보며 놀이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유아기의 충분한 놀이경험이 이후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리과정을 놀이중심으로 개정하신 것도 동일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개정 누리과정 교육이 그 취지에 맞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넷째, 부모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유치원의 원격교육이나 휴원을 경험되면서 아이와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과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부모로서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아기 부모는 부모로서 처음이라서 더 어렵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BS나 누리과정 홈페이지에서 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부모교육보다는 개별적인 상담이나 컨설팅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부모교육 개선을 고려해볼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국가 수준의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누리과정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 공통 적용을 완전하게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두 기관 간 격차가 있다고 느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에 대한 국가적인 목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일화 또는 통합의 노력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치원도 반일반과 종일반이 있고, 어린이집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있으며 운영시간은 거의 동일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도 교육과 돌봄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도 교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에게 부모가 기대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NOTE

[illegible]

06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한 고민

김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중심·놀이중심’을 추구하는 것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공유해야 하며,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육아정책연구소의 「2019 개정 누리과정」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2020~2022)는 정책 방향 제시와 더불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이 온전히 현장에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육청의 입장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역할과 지원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년 3월, 개정 누리과정은 시행되었고 코로나19 속에서 긴급 돌봄과 원격수업, 등원을 병행해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의 교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현장의 변화(원격수업과 각종 첨단기술의 활용, 비대면 소통 등)에 따른 미래교육의 흐름 속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적용은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실천 방법은 손에 잡히지 않는 막막함으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현장 교사들의 개정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천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 모임이 아닌 목적에 맞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현장에서 ‘전학공’으로 불리고 있는 이 활동은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수업을 개발하고, 함께 실천하며, 교육활동에 대해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의 ‘전학공’ 활동은 대부분 ‘활동’ 그 자체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독서 모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교사들의 독서 활동이 교육 활동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였으며, 교사들의 수업 나눔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눔의 이유가 무엇이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채 단지 ‘활동’의 실적을 축적해 가는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별로 해당 교육과에서 추진하던 ‘전학공’ 사업을 미래학교혁신과로 통합하였으며 「도란도란 열린 전학공」과 「함께걸음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교육’이라는 커다란 울타리 속에서 다양한 학교급 교사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서로의 성장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연수

유치원 현장 요구를 반영한 지원사업으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소규모·맞춤형 교원 연수를 통해 자발적 연구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치원으로 찾아가는 연수」는 현장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bottom-up(바텀업)방식의 맞춤형 지원으로 교사의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으로 개정 누리과정 및 수업 내실화에 효과적이며 연수에 대한 교사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 수업 나눔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교육회복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 지원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40명의 수업지원단을 공모하여 맞춤형 수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놀이 운영사례와 자료 공유, 함께 만들어가는 놀이수업과 놀이환경 개선사례 나눔 등을 통해 현장의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 이해와 실행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수업 나눔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공유하고 협력적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아의 마음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현장 운영사례를 공유하고자 유튜브를 활용하여 「수업 나눔 공감 토크 - 유아인성교육, 미래의 중심에 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격 및 인공지능 활용 등 디지털 기반의 수업 운영 활성화 등의 다양한 미래교육의 변화에도 그 중심에는 놀이 중심의 유아 인성교육이 중요함을 공유하였고, 자유토론 및 실시간 질의 응답을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운영 현장의 자율성 지원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교사의 놀이를 지원하는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유아의 삶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출발점이자 교육과정 실행 과정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장의 교사들은 유아의 놀이 관찰과 기록을 어떻게 교육과정과 연결하고 교육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의 다양한 놀이 관찰 기록과 사례를 담아 놀이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관찰과 기록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2021 인천아이 놀이관찰기」를 제작하여 현장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유아교육전문가로서 교사들의 시각으로 들여다 본 유아놀이 관찰과 기록은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자녀의 놀이와 배움을 가시화 해줌으로써 학부모와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부모-교사 관계 형성과 진정한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여전히 놀이 외의 학습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일상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학부모가 유아교육의 주체로서 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 강화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유치원 교육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관리, 감독에서 '지원, 협력'으로의 역할 변화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요구 중 현장에서는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을 손꼽고 있습니다. 학급당 유아 수가 많다는 것은 모든 유아가 교사의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 조정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여 연차적으로 유아 정원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며, 내실 있는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전담교사가 없어 긴급한 보결 상황 시 대체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5개 교육지원청 별로 중심유치원을 선정하여 보결전담 종일제 강사 17명을 배치하고 순회 강사로 운영하여 미흡하지만 유치원 교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경조사, 출산휴가, 1급 정교사연수 외에 난임 치료·수술, 임신 검진 및 자녀돌봄휴가 및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공가·병가 등을 위해서도 대체교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한 경우 1일 9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 학년도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지원하여 사립유치원 교사의 모성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외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의 놀이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이기에 공·사립 유치원의 교육공동체와 교육청, 교육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개정 누리과정의 성공적 안착은 더 앞당겨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NOTE

[illegible]

NOTE

[illegible]

07

토론문



「2019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기대

정 경 진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들어가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주요 골자인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은 다양한 교육방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유아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2019 개정 누리과정은 편성·운영에 있어 변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실행에서 사전에 계획한 활동 중심이 아닌 유아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이루어지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일어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는 유아가 놀이하며 배울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필요한 교육적 판단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종전 누리과정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의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 교육과정으로써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은 교육과정 실행주체인 교사의 인식과 어려움을 파악하여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연구절차라 생각한다. 본고의 주제발표인 「2019 개정 누리과정」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I)에서 어린이집 교육과정 사업을 지원하는 센터의 입장에서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 운영사례, 정책제언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자 한다.



1 개정 누리과정 실행 및 인식에 관한 논의

- 누리과정 운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에서 향후 희망하는 연수로 원장과 교사 각각 놀이지원이(41.7%) 가장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놀이가 막막하고 어렵다는 것이다. 유아와의 놀이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놀이를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놀이를 어렵게 인식하고 놀이지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의 요구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의 경우 의무 평가제로 인해 교사의 자율성이 부여된 개정누리과정 교육 과정을 현장에서 적용할 때 평가제 지표와의 연계성 및 적절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실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 유무는 원장의 교육과정에 대한 실행 및 개선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에 비해 직장,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유치원의 경우 공립단설, 공립병설) 순으로 장학이나 컨설팅 경험이 많다는 연구결과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놀이지원 및 자율장학, 컨설팅 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개정 누리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장의 실행 의지와 인식을 일깨우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연구 자료 결과에도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의 변화를 보면 유치원 원장이 어린이집 원장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어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원장의 인식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한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에 관한 데이터가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교사가 낮은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수⁵⁾ 및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의 수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공립 유치원은 원감 및 수석교사의 제도와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원내장학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은 100인 이상의 큰 규모 외에는 교육과정의 전문성 있는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결국, 지역 육아종합지원

5) 충청북도: 어린이집 1,082개소, 보육교직원 10,432명, 유치원 318개소, 교직원 1,619명(2020년 12월말 기준)

센터의 외부전문가를 통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한 시도 단위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만 집합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누리과정 교육예산 또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집행하여 진행하고 있기에 교육을 진행하는 시도센터는 중앙정부의 누리예산이 전무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사례 중심 놀이지원과 자율장학 지원을 위한 인력풀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 장학이나 컨설팅을 요청하는 연수내용도 놀이지원에 대한 응답수가 가장 높았고 효과적인 전문성 제고방법 또한 외부 컨설팅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소규모 컨설팅 및 자율장학과 누리과정 놀이지원을 위해서는 각 행정기관의 이해를 통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나 지자체와의 협조 없이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 개정 누리과정 운영 내용 중 교수·학습에 대한 실천 정도 평가에서도 원장과 교사 모두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의 평정점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집의 운영 특성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교사 1인이 기본보육시간 및 그 이후시간까지 많은 유아들을 장시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의 지원 및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개정 누리과정에 가장 중요한 교사 관찰 및 지원을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보인다.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업무시간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서도 대부분 놀이지원을 위한 준비시간과 계획 및 평가문서 작성 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어린이집 교사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교사의 많은 고민과 관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개정 누리과정에서 업무시간 동안 보육교사가 온전히 집중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지원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어린이집은 의무 평가제이기 때문에 개정 누리과정 놀이 실행이 평가제 지표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평가제에서도 적절한지, 서류 작성 부분에서는 무리가 없는지 많은 것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진행 방식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함이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유치원 교사보다 어린이집 교사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이 보여 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는 유아비율이 높다는 점과 놀이에 대한 이해, 전문성 부족을 꼽고 있다. 유아 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인 개정 누리과정에서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저마다 다른 특성과 요구를 가진 유아들의 개별적인 놀이지원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놀이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정 누리과정 연수 및 교육 지원이 필요하며, 원장과 보육교사 대상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또한, 유치원의 경우 교육과정 개정 이전에도 온전히 유아만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었기에 그 혼선이 크지 않으나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부터 만5세까지 보육하는 영유아의 연령편차가 크며 교사들 간의 연령별 보직변경도 매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연령에 따른 발달차이와 놀이실행에 있어 혼선이 더 있을 수밖에 없다.
- 또한, 유아반 교사를 맡다가 다시 영아반 교사로 변경되는 경우, 유아반 교사로서 보육 업무 역량을 쌓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력 단절이 되기도 하여 실행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 개정누리과정 집합 연수에서도 영아반을 맡다가 유아반을 맡게 된 보육교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 교육 및 자료, 참관 등의 지원요청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개정 누리과정 실행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같은 맥락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에도 개정 누리과정 연수에 대한 심화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37.5%)는 연구결과도 이러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어 교육과정 실행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2 개정 누리과정 운영사례에 관한 논의

- 12개 기관의 개정 누리과정 실천사례에서 시사점으로 제시한 다섯 가지의 내용은 교사의 전문성이 더 필요함을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유치원 교사들은 원내장학,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교사들 간의 소통과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다양한 보육관련의 전공배경과

원장의 교육과정 실천중요성의 체감 정도에 따라 자율적인 원내장학이나 학습공동체를 끌어가는 의지가 낮아 결국,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인력풀을 통한 소모임이나 컨설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최근, 충청북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2022년~2026년)준비과정에서 충북도내 보육 교직원들의 설문에서 놀이중심 교육과정운영을 위한 재교육방식으로 개별 컨설팅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아 전문적인 컨설턴트 위촉 확대 및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시도 및 시군구 센터의 년 간 부족한 사업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교육과정 사업에 대한 센터장의 운영철학과 지역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요구를 반영한 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어린이집 교사들은 놀이중심의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의문점과 고민들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지해 줄 동료 교사의 지지체계 마련이 전무한 상황에서 개정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안착과 교육과정의 수혜자인 유아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예산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 또한,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감)과 교사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인력지원과 교사 대 유아비율을 낮추는 것에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다. 출산율의 저하와 양육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는 자아중심성이 강하고 경제성 장애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명 내외로 구성된 유아반에 자기조절력이 부족한 유아가 포함된 경우, 교사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활성화 시키지 전에 안전요원의 역할로 놀이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유아 각각의 기질과 흥미에 따른 개별 상호작용을 위해선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교사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3 정책 제언에 대한 논의

- 정부차원의 정책방안에서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다는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 지원비와 교사의 처우개선비의 지원현황만으로도 파악이 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을 교육정책으로 추진하고자 사립유치원의 경우 별도의 학급운영비를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처우개선비 또한 공립유치원과 급여차액을 줄이고자 평균 월 65만원⁶⁾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유아반 교사의 처우개선비와 누리과정 보육료 등의 최소한의 행정적인 지원 외에는 질 높은 교육과정 진행을 위한 운영비 예산을 어린이집의 부족한 운영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출산으로 어린이집 현원 충족률은 지속 감소하고 안정적인 보육료 수입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직원의 연수비는 운영비 집행과정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이다. 향후,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부의 법령개정과 예산마련 정책은 가장 시급하면서 우선시 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 또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중 교사의 자율연수를 위한 기반마련을 위한 ‘연수은행제 시행’에 대한 제언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독려를 통해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지만, 먼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시간을 고려할 때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비담임 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교사가 다양한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인력배치 및 평가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부분에서 어린이집의 의무평가제는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과 인식조사의 설문내용의 다양한 교사의 건의사항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다. 보육현장에서는 개정된 누리과정 실행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나, 어린이집은 직면한 평가제 준비과정에서 개정된 교육과정 실행의 어려움을 새롭게 인식하고 진정한 유아중심의 놀이시간이 아닌 평가를 위한 놀이기록으로 문서작성에 대한 업무가중과 스트레스로 직무에 대한 이종고를 겪는다. 평가제 지표 일부 내용에 대한 지표개선이 필요하다.

6) 누리과정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지원현황(충청북도 2020년 12월 말 기준)

- 정책방안 다항의 내용은 전체적인 정부차원의 정책방안에서 구체적인 부처 간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과정과 동등한 지원을 위한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협력과 누리과정 운영의 질적 격차 완화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은 ‘예산확보’라는 큰 과제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광역 시도청과 교육청의 복잡한 ‘지방재정교부금 예산’ 집행 관련 지원기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여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입장에서는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 개정과 지속적인 부처 간의 협력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긴밀한 협력은 전국 광역 시도청의 개정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확보 및 예산지침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결국, 각 지역의 개정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어린이집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다양한 누리연수와 컨설팅, 학습공동체를 지원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선 최소한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처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전국 시도의 어린이집에 시범적용 될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운영비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했었다.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2~3년의 기간을 시범적용 대상 어린이집, 지역 내 교육과정 활성화 어린이집, 거점형 멘토링 어린이집을 단계별로 지정하여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활용하여 더 많은 어린이집과 교사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나가며

저출산 시대 속에서 점점 감소하는 영유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누어 격차만 벌어지게 하는 현재, 수준 높은 교육정책 변화의 대응은 보육교사의 전문성 신장이고 질 높은 보육교사의 자원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유아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유아들이 진정 질 높은 보육환경 속에서 돌봄과 교육을 받아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받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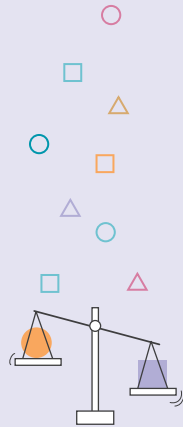
참고문헌

교육부·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2020년 12월 말 기준 보육통계)

충청북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2020년 12월 기준 유치원통계)

충청북도 누리과정·어린이집, 사립유치원 지원현황(3~5세) 보조자료



2021년 제6차 KICCE 정책토론회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Ⅱ)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